

통권 132호 **부명4 회 소식**

발행일 2002. 10. 15

발행인 권오헌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 기소 철회하라!



지난 9월 8일 옥인동 대공분실앞에서 '한청 이적규정 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한국청년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올라온 350명의 회원앞에서 한청탄압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청이적규정음모 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였다. 연행된 지도부는 모두 묵비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청 3명의 구속자들은 10월 1일 모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및 가입' 협의로 기소되었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의 민족화해물결을 뒤로 하고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목• 차• 우리의 주장 권오현 회장 • 2 /출소장기수 변숙현 선생님을 찾아서 김현희 편집위원 • 5 /한청전상봉 의장의 부인 강병 식님을 찾아서 김호 편집위원 • 10 / 신임 송창학 간사를 만나서 이창희 간사 • 12 /전 한총련의장 손준혁님께서 보내온편지 • 14 /한 청 전상봉 의장께 보내는 편지 한청회원 • 15 /면회기 고광희 간사 • 16 /산행기 김혜순 편집위원 • 17 /회원교육강좌 보고 이용준 회원 • 19 /부산 아시안게임 참관기 김수룡 장기수선생님 • 20 /특집 '한청 이적규정' 규탄 • 22 /논단 - '이적 의 문제 • 26 /나의 삶 나의 일터 권오현 회장 • 28 /시사만화 • 30 /이런 일이 있었어요 • 31 /재정보고 • 39 /회비납부 • 40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전화**: 765-5282 **전송**: 745-5604 회원모임방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전송**: 888-4470 **홈페이자**: www.yangsimsu.or.kr

한국청년단체협의회에 대한 이적단체 공소를 취하하고 전상봉의장을 비롯한 구속간부 3명을 조건없이 석방하라!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장

_____ 들은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웃의 고통이나 사회적 불의와 모순을 못본 체 않는 보 통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민주화, 민중들의 생존문제 그리고 사회진보와 정의평화 추구에 앞장 서 왔었다.

그들은 또한 민족구성원으로서 동강난 조국의 허리 를 잇는 헌신해 왔었다.

그런 일들이 잘못이었다고 한다. '미란다 원칙' 제시도 없이 강제연행, 구속·기소하는 죄가 된다고 한다. 그것도 적을 이롭게 한다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씌우고 있다. 보통사람의 상식이나 민주사회의 법절서 그리고 민족적 양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부당한 행패는 옛날 이야기나 지구 어느쪽 '토픽'기사가 아니라 오늘 바로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안보를 핑계한 인권탄압이며 6·15남북공동선언정신을 파탄내려는 의도마저 엿보인다.

박제된 수구·냉전논리와 단세포적 공안논리로는 7.4남북공동성명도 6·15남북공동선언도 '공산집단의 적화통일을 위한 통일전선'수단쯤으로 깔아뭉기게 된다. 비무장지대 지뢰밭이 헐리고 휴전선이 뚫리어 경의선, 동해선을 잇고 있어도 주적개념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 푸른 잎이 단풍이 들어 앙상한 겨울나무로 되는 사계의 변화가 있듯이 사람도 아이가 자라고 늙어 생명이 다하는 변화를 겪는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영원한 적이나 동맹국은 없었다. 어떠한 법칙성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지만오랜 인류사에서는 합종연횡(合從連橫)식 변화가 많이 있었다. 우리 역사만 해도 삼국다툼시대, 남북대치

시대가 여러 번 있었다. 춘추전국시대를 비롯한 여러 나라로 갈라져 있던 중국이 왜 철저하게 통일천하를 추구했었던가.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이었다. 오늘 우 리 민족이 외세 때문에 갈라져 있지만 통일로의 전민 족적 염원은 멈출 수가 없었다. 한 몸체였던 우리가 왜 영원히 갈라져 있어야하고 더구나 냉전지대로 남아 겨루고 있어야 하겠는가. 모든 사물이 그러하듯이 우 리의 민족문제, 남북관계도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고 또 민족적 생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문제 발전을 애써 외면하려는 고 정관념에서는 6 · 15공동선언, 남북당국자회담, 8 · 15 민족통일대회, 통일축구대회, 아시아경기대회에서 남 북의 수 만명이 한 마음으로 공동응원을 하고 있는 조 건에서도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여전히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벼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 된 반국가단체"였다. 그리고 "남조선해방 및 한반도 의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고 규정해 버리고 있다. 누구든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물을 어떻 게 보고 인식하는 것 자체는 그 자신의 자유에 속한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보장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의 잘못된 판단과 행위는 원래의 국가존 립목표를 해치는 일로 결코 그대로 보아 넘길 일이 아 니다.

검찰은 전상봉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의장과 정대일 사무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과 공소외 한청간부 들이 "북한의 소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론 (NLPDR)에 의거 한국사회를 미제에 종속된 식민지로 보고 한국 사회의 변혁을 위한 정치노선으로 자주· 민주·통일노선을 채택하여 미군철수등 반제자주화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등 민권민주투쟁, 연방제통일의 실현을 선전·선동하는 단체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결성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적단체)"라며 위 세 사람을구속·기소했다. 바로 악명높은 반인권·반통일악법국가보안법에 걸어 7조1항 찬양·고무죄와 3항 이적단체, 5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적용시켰다.당사자들이 말했듯이 낮에는 생존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밤에 틈을 내어 지역사회 봉사나 문화·취미생활을 하면서 분단현실을 아파하며 사회의 소금이 되고저 애써 온 청년들을 칭찬은 못할망정 이적단체의굴레를 씌우려 하는 검찰조치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많은 사람들을 분노의 목청을 높히게 했다.

한 단체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는 그 단체의 강령·규약과 활동내용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청을 이적단체로 임의규정한 한청 강령전문을 보기로 한다.

… 청년은 새 역사의 주인이며 자주조국건설의 주역이다. 이 땅의 청년들은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민족의 해방과 자주 독립을 위해 항일전선에 떨쳐나섰고 외세에 의한 민족의 분단을 반대하고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 사회민주화를 위해 싸워 왔다.

지난 날 선배청년들의 애국·애족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받아 우리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의 깃발을 세운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한국 청년들의 진취적 기상과 열정으로 나라의 자주와 민족의 평화통일, 사회의 민주화와 민중의 생존권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 각층 민중들과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

어느 한 곳도 이적단체로 규정할 만한 데가 없다. 도 대체 같은 민족인 이 땅의 검찰은 어쩌면 그렇게도 가 치전도적 시각을 갖고 있는 지 알 수가 없다. 국가안보 는 공안당국의 잘못된 시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전체 구성원의 의지와 실천으로 이루어지 는 것이다. 나라의 자주와 민족의 평화통일, 사회 민주 화와 민중의 생존권 실천 의지는 한청뿐 아니라 이 땅 누구라도 추구하고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유독 공안 검찰만이 그 주장과 지향을 불온하게 보고 있다면 국 민의 의사로 구성된 국가기관의 임무로는 적격자가 아니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한청은 강 령 본문에서도 올바른 세계관 · 인생관 확립과 노동생 활에 바탕한 정서함양, 민족문화 창조에 앞장서겠다 고 했다.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외세의 부당한 간 섭을 반대하고 한 · 미간에 형성된 정치, 군사, 경제, 문화적 불평등성을 제거하여 대등하고 자주적 관계 실현에 노력한다고 했다. 7 · 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 된 자주ㆍ평화통일ㆍ민족대단결 원칙에 기초하여 통 일사업을 전개하고 6 · 15공동선언을 지지 · 이행하여 연방제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했다. 검 찰이 가장 문제시한 부분들이다. 특히 연방제통일 주 장을 문제삼은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분단조국의 평 화적 통일은 서로의 체제와 제도를 인정하고 존중하 는 데서만이 가능하다. 분단 반세기를 이어 온 서로 다 른 체제와 제도, 사상, 이념을 하나로 한다는 것은 한 쪽이 다른 한쪽의 양보로 흡수통일하거나 전쟁으로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어느 방법도 비현실적이고 가능성도 없다. 이미 6 · 15공동선언에 서도 남쪽의 연합제와 북쪽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 통점을 지향하기로 하여 서로의 방법을 인정한 셈이 다. 그리고 서로의 체제와 제도, 이념과 사상을 넘어 민족적 대단결로 통일하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민족 구성원이라면 누구든지 통일방식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고 추구할 수도 있다. 의견자체만으로 이적성을 묻는다는 것은 통제사회에서나 가능한 전근대적 야만 행위이다. 검찰은 또한 한청이 국가보안법 철폐운동 을 벌인 것에 문제삼으려 한다. 국민 80%이상이 국가 보안법 개폐주장을 하고 있는 터에 국가보안법폐지운 동 자체를 처벌하겠다는데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수 없이 주장된 일이지만 6 · 15남북공동선언시대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더 이상 존립명분을 잃었었다. 따라서 어떠한 이유로도 국가 보안법과 6 · 15공동선언은 양립할 수 없다. 대통령도

말했듯이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럼에도 오늘 남북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다. 어느 누구도 이 변화를 막을 수 없다. 그래서 국 가보안법은 사실상 사형선고 받은 셈이다. 실효성을 잃고 있는 것이다. 공안당국의 시각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시킨다면 그리고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법적용원칙을 지킨다면 김대중대통령으로부터 수많은 정부당국자들이 모두 잠입・탈출, 편의제공, 금품수수, 회합・통신죄 등으로 구속해야 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흐르는 물을 막을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린다해서 태양이 사라질 것인가. 국가보안법도 공안시각도 시대를 거역하며 존재할 수는 없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공소장에서 말했듯이 53개 지역 · 부문단체들이 모여 이룬 청년단체이다. 단체에 따라서는 환경운동, 지역사회운동, 부패방지운동, 여 성운동, 건전한 문화운동등 지역과 부문의 특성에 따 라 다양한 활동을 한다. 한청은 또한 공개적이고 합법 적이며 투명성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이다. 떳떳한 일 에 비공개가 있을 수 없었다.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 사건에 분노하고 불평등한 SOFA개정에 목소리를 높 이기도 한다. 청년들의 열정과 민족적 양심에 따른 주 장이고 행동이었다. 그렇게 떳떳한 공개단체였기에 한청이 결성되고서도 전상봉 의장이 2001년 8 · 15민 족통일대축전에 평양을 다녀올 수 있었고 정대일 사 무장과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이 2002년 8 · 15민족 통일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공안당국의 불허조치 가 없었다. 또한 애국 · 애족의 열정과 청년의 기백, 민 족적 양심으로 모인 청년들이 자신들의 강령·규약· 창립선언문을 만들고 단체소식지를 만들어 회원에게 보낸 것을 이적표현물 제작 · 배포죄라 하고 수 만명 이 모여 민족통일대축전과 통일한마당을 벌인 연세대 학교에 들어간 것을 건조물 침입이라고 하는 검찰의 사법판단은 과연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 을 수 없다. 검찰의 이러한 억지논리라면 많은 사회단 체들이 국가보안법 법망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 고 연세대에 모였던 수 만명을 한청간부들처럼 건조

물침입죄로 잡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제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 군사회담, 경제협력등 당국자회담이 줄잇고 6 · 25전쟁때 행방불명된 가족들 의 생사확인, 남북으로 흩어져 사는 가족들의 면회소설치, 주소확인 등 각종 인도주의 사업도 뒤따르게 되었다. 배를 타고 금강산 가는 길이 옛일로 될 수 있게되었고 수백, 수천의 남쪽기업들이 개성공단이나 신의주 특구에 진출할 수 있는 시기를 맞고 있다.

바로 화해와 협력사업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필연적으로 그에 알맞은 법과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했다. 바로 국가보안법 등 6·15 공동선언 이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과 제도를 없애거나 고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안국은 오히려 낡은 냉전, 공안논리로 그리고 존립명분을 잃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범민련, 한총련에 이어 다시 한청을 이적단체로 몰아가는 시대역행적 행패를 벌이고 있다. 인권침해를 넘어 6·15 공동선언을 훼손시키며민족의 화해와 단합, 교류와 협력에 찬물을 끼얹고 자주와 통일로 가는 길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정의와 양심세력, 자주와 통일세력은 공안검찰의 부당한 탄압에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정의의 편이고 7천만 민족의 염원은 반드시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장한다.

- 한청에 대한 이적단체 공소를 취하하고 구속간부 를 곧바로 석방하라
- 국가보안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석방하라
- 범민련·한총련·한청에 대한 공안탄압을 중단 하라 ♠

"자기 반성을 생활화하면 단결할 수 있다"

김현희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라 라 많았던 올 여름. 그 때문에 어수선한 추석 명절을 지내야했습니다. 석삼년 만에울어매를 모시고 외가에 다녀왔는데, 동해안 해변가의 작은 마을이 그냥 쑥대밭이 되어있더군요. 올라와 번동에 사시는 박정숙·김선분 두 분 선생님 찾아뵙고 어리광 섞인 하소연도 하면서 여러모로 심란했던(태풍 탓이었던가?)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더 이상 알려고 하지 마라/알 아도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그렇 게/ 우리 입을 틀어막는 가시 철

책이 있고, 시퍼런 위협으로 다가와 머릿속까지 혜집 으며 자기 검열을 강요하는 그것. 국가보안법. 우선 그 것부터 부숴버리자고 다짐해봅니다.

올해 늦봄이었습니다. 우연히 마음을 끄는 논문 하나가 발표된 것을 알았습니다. 한양대 여성학 석사논문인데 「여성주의 역사쓰기를 위한 여성빨치산 구술생애사 연구」가 그것입니다. 평소 말로만 과격한() '래디컬 페미니스트'로 자처해오고 있던 바, 그걸 꼭찾아 봐야지 맘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0월 6일,역사강좌에 오신 변숙현 선생님을 만나 댁에 따라갔습니다. 살아오신 이야기와 좋은 말씀 듣고, 논문도 얻어와 볼 수 있었지요. 그 날 밤, 논문이라는 걸 읽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생소한(!) 경험을 했습니다. 문자로 가라앉아 있는 역사가 아니라, 가리워져 덮여 있었



으나 생생한 아픔으로 살아오는 역사를 보았고, 나 또한 그 역사 의 작은 일부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역사와 운명 앞에 마주서는 한 순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살면서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눈감고 살아가지요.

선생님께선 말씀하십니다. 그 시대를 만나 꽉 붙잡았노라고. 그렇게 온 힘을 바쳐 살아오신 생애 앞에 한없이 작고 비겁하 기 만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난 내 몫의 시대와 역사를 제대 로 받아 안고 가는 중인가?

집 안에 갇혀 지내던 어린 시절

변숙현 선생님께선 1924년, 전형적인 봉건 농가의 만딸로 태어나 자라셨다고 합니다. 전부 50호 정도 되는 동네였는데, 주로 변씨들이 사는 집성촌이어서, 타 성받이는 몇 집 되지도 않았고 그들과는 접촉도 잘 않고 멸시하곤 하던 봉건사상이 농후한 마을이었다네요. 가문 따지고 양반 따지던 동네였으므로 당연히 남녀차별도 심했겠지요. 예닐곱살이 되면 男女七世不同席 - 여자아이들은 바깥 세상과 차단되어 집안에만 갇혀 살아야했다고 합니다. 물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았다네요. 그런데 듣자하니, 타성백이였던 동네 면장 동생되는 이가 딸을 학교에 보내더랍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에 그게 어찌나 부러웠던지, 혼자 울기도 하 셨답니다.

"그렇잖아? 운동이나, 노동자들이 파업하는 것도, 다, 억압이 있으니까, 박차고 나오고 싶은 의지가 생기 는 거지. 자유로운 세상을 찾으려고…"

그렇게 자유를 꿈꾸며, 스무 살까지 울타리 안에서 만 살았다고 합니다. 집안에서 국문으로 편지를 쓸 정 도의 공부를 시켰는데, 당시 딸이나 며느리에게 베푸 는 최고의 교육이었다네요. 사돈 간에 오고 간 편지를 묶은 '사돈書'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편지교본이 어서 한글교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나마 동네에서 사돈서를 잘 쓸 줄 아는 아낙은 몇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음력 3월 봄이 되면, 창호지로 공책을 매서 붓으로 사돈서를 베끼며 글씨를 익혔다고 합니다. 3년 간 올 케와 둘이 앉아 그렇게 국문을 배워 익혔다고 하십니 다. 그랬는데 31년에 객지로 나갔던 선생 부친께서 1943년, 선생님께서 스무 살이 되던 그 해에 북만주 흑룡강에서 편지를 보내오셨답니다. 모친 앞으로 약 간의 돈을 부치면서, 그 돈으로 만주로 쫓아오든지, 그 냥 고향에서 살아보든지 좋을 대로 하라고. 그러자 모 친께선 일제 말기의 징용이네, 정신대네 흉흉하던 고 향 생활을 털고 남매를 이끌고 북만주를 향해 길을 나 섰습니다. 선생님에게는 태어나 처음으로 기차를 타 고 넓은 세상으로 나가는 길이 되었지요. 북만주에 당 도하자 동포들이 새로운 식구가 왔다고 모두 반가이 보러오고, 또래 처녀가 있어 친구도 사귀게 되었다고 합니다. 황해도 사람이 와서 하숙을 치고 있었는데 그 집 딸과 친구가 된 것이지요. 그 하숙집에 묵고 있던 조선 청년들은 대개 벌목공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모 두들 항일감정이 대단했다 합니다. 더러 남만주로 가 독립군에 가담했다는 소문도 있었나 봅니다. 하숙집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전해주었고, 주로 그 집에 모 여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 곤 했답니다.

부친으로부터 항일투쟁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다고 하십니다. 비적과 마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적이란 그냥 도둑떼를 이르는 것이고, 비적이란 백두산을 근 거지로 일본놈과 싸우는 김일성부대를 이른다고 하시면서, 거긴 학교도 있고 차별도 없는 곳이라 하더라 그러시더래요. (그 말에 귀가 번쩍 하셨겠지요?) 그런데 재작년에 오고 그 다음해부터 오지 않았다 그러시더래요.

감나무 밑에서 마냥 입 벌리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내려온다는 소식만 기다리셨답니다. 도망가려고. 그게 살 길이라고… 그런데 해가 자꾸 바뀌어도 온다는 소식은 없고, 남만주로 찾아 나서자니, 처녀 몸으로 중국말도 모르고, 그리 안타까운 세월만 보내다가, 열여 섯만 되면 죄다 시집을 보내던 당시 풍습에 스물 둘이되어 노처녀 소리를 듣게 되니, 모친께서 자주 드나들던 중매쟁이를 통해 같은 고향 쪽 조선 총각과 혼사를 결정하시더랍니다.

석 달 동안의 새색시

그 때가 1945년 음력 5월. 오형제에 위로 누남 하나를 둔 셋째 아들과 결혼을 하시게 된 겁니다. 혼인 때는 삼강성에 사시던 시아주버님 혼자 와 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석 달 만에 해방이 되었다네요. 해방과함께 북만주의 조선 청년들은 고려인이란 표찰을 해달고, 청년단을 만들어 활동했다 합니다.

45년, 추석 지내고 그 이튿날, 동포들이 모두 모여 북만주 철려현에서 하얼빈까지 기차 한 칸을 세내어 고향을 향해 떠났습니다. 음력 8월 17일, 하얼빈에 도 착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걷다가 걷다가 차편이 있으 면 타다가 또 걷다가, 그렇게 두 달이 걸려서 음력 10 월 보름이 되어 시댁에 도착했는데, 살림이라는 것이 "아, 말도 마…" 한숨 나오는 형편이었다 합니다.

그 무렵 남쪽에는 인민위원회가 생겨 그 때부터 서 방님께선 줄창 나가 다니셨는데 옷 갈아 입으러나 감 깐씩 들르곤 했답니다. (신혼 끝!고생 시작)

"동짓달 초이틀이 생일이었는데… 생일이라고 집 에 오나, 설이라고 오길 하나…"

명절 챙길 여유도 없었나봅니다. 시어머니와 한 방에서 지내는 곤궁한 형편이었지만, 시집살이라고 할

건 없었다 하십니다. 선생께서 바지런한데다 눈썰미 있고 바느질 솜씨가 좋아 시부모 수발하는데 어려울 게 없었답니다. 위로 동서가 둘이나 있었으나, 시동생장가보낼 때, 식구들 옷 해 입히고 뒷바라지하는 걸 선생께서 맡아 하셨다고 하네요.

1946년, 10월 투쟁이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마을에서도 봉화 올리고 싸움이 시 작되었는데, 당연히 경찰의 탄압이 들어오게 되지요. 삐라 붙인 사람이 누구냐고 캐고 다니고, 시도 때도 없 이 집에 들이닥쳐 동향을 살피고 그러더랍니다.

47년 봄에 아들을 낳으셨고, 그 해 선생님께선 입당 하시게 됩니다. 그러고나서 탄압이 더욱 심해졌지요. 시부께선 장사를 나서 집을 떠나시고, 밑의 동서는 친 정 곁으로 제금 나고, 막내 시동생은 학교로 떠나고, 그렇게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져 48년에는 母子 둘 만 산중에 남았답니다.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정 못 견디 겠으면 자살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리 맘을 모 질게 먹고 용기를 내어 대들고 싸웠다 하십니다. 그래 도 부락에 선이 있어, 경찰 행패가 지독할 때는 보고가 올라가고 그랬나보다고 하시네요. 하도 대차게 싸움 을 잘 하니, 한번은 경찰이 이런 소리도 하더랍니다. "당신 서방이 군수로 와 있다해도 이러케 못 하것소." 하루는 쪽마루에서 빨래를 밟고 섰는데 쫓아왔더랍니 다. 시비가 오고 갔겠지요. 사람을 마당에 세워두고 그 리 내려다보면서 뭐하는 게냐고 트집을 잡더래요. 그 래서 초대한 적 없다, 반갑지 않은데 뭔손님이라고 맞 겠는가고 대꺼리를 했더니, "악질!"이라고 하면서 가 더라는군요.

48년 봄, 아들이 돐이 되었는데, "피하라!"는 지시가 오길래, 애기를 업고 다른 면으로 가 있다가 사흘 만에 지서 앞을 지나서 돌아오려니, 경찰이 내다보며 "집에 가보소! 좋게 해놨소." 그러더래요. 와보니, 기둥을 톱으로 썰어 지붕이 기우뚱하니 내려앉아 있고, 살림 살이라고는 몽땅 박살을 내놔서 돌절구 하나만 달랑 남았더랍니다. 다행히 구들장을 파헤치진 않아 방안 에 들어가 누울 만은 하겠더래요. 도망 다니느라 포대 기에 꽁꽁 싸서 업고 다니던 애기를 방안에 풀어놓으니, 좋아라고 뻘뻘 기어다니더랍니다. 저도 집에 돌아와 좋았던 겐지.

돐쟁이 생일이 음력으로 2월 18일 인데, 그 날은 17일, 흰한 달빛 아래 기도 안차더랍니다. 어찌어찌 근처를 뒤져 귀퉁이 깨진 옹기 솥을 찾아가지고, 꼭꼭 숨겨두었던 쌀로 밥을 해 먹었다네요.(그 아주마이, 엄청 담도 씨다. 그쵸?) 먼 촌 고모가 안쓰러운 맘에 들여다보러 왔다가 밤에 잠도 못 자고 집으로 가시더랍니다. 나중에 전해 들으니, 집에 가서 그러셨대요. "도깨비가 돌아다님서 깨진 그럭들을 덜거덕거리는 통에 무서버서 잠 못 자겼더라."고. 생쥐들이 돌아다녔겠지요. 그밤에.

그 집에서 그렇게 일년을 사셨답니다. 그러면서 단 련되어 갔던 것입니다. 49년도 봄까지 동네 일을 다니 면서 레포(Repo) 쪽지도 전달하고, 세포 조직도 하면 서. 저녁이면 경찰들이 들이닥쳐 왈칵 방문을 열어제 끼며 누가 왔더냐고 닥달하고 가고 그랬답니다. 그러 던 어느날 저녁, 연락이 왔대요. 체포령 때문에 조치하 는 것이니 급히 떠나라고. 남원 쪽으로는 산길 40리, 임실로는 산 넘어 30리 길. 일단 임실로 넘어가 대전으 로 가기로 하셨다네요. 유성 쪽 국방경비대에 있던 남 동생을 찾아가기로 하신 겁니다. 물어물어 부대를 찾 아가 만나가지고 밤 새워 그 동안의 이야기를 하셨답 니다. 그리고는 동생이 꾸며준 부대 휴가증을 지니고 부안 친정으로 갈까, 남원 시댁으로 갈까 하다가, 당시 목기 장사를 하던 시부모 계신 남원으로 가셨다고 합 니다. 선생께서도 보따리 장사를 시작했는데, 처지가 남 다르다보니, 장사도 쉽지 않더랍니다. 장사라는 게, 외상도 깔아야 하고, 더러는 곡물로도 셈을 해줘야 하 고, 단골을 잡아야 하는 것인데, 그저 한번에 현금으로 만 셈을 치러달라 하였으니… 이름도 친정 어머니 성 을 따고 순서를 바꿔 '김현숙' 이라 하면서 다니셨다 네요. 그러고 다니던 차에 어느 날엔가는 임실 오수 쪽 에서 밤을 지내야 했는데, 찾아 들어간 집의 안주인이 무슨 눈치를 챘던 건지 자기네 방으로 들어와 같이 자 고 가라 권하더래요. 아니나 다를까, 오밤중에 임검이

들이닥쳤는데, 방안에 낯선 사람이 있으니 의심을 했겠지요. 그 안주인되는 이가 딸이 와서 잔다고, 애기 낳아서 친정 엄마 보러 왔다고, 자고 내일 갈거라고, 그리 감싸주더라네요. 그런 잊히지 않는 사연도 있었다는군요.

1950년, 아이가 네 살이 되었는데, (애비라고는 보도 못하고 크니) 혼인신고며 호적이 안되어 있어 그걸 해야겠어서, 본적지 면사무소에 가 서성이고 있노라니, 마침 집안 오라버니가 면사무소에 출근을 하더랍니다. 그분이 호적계라, 수월히 일을 마쳤다네요.

영화나 소설처럼, 그 날따라 비는 부슬부슬 내 리고

50년 6월, 조국전쟁.

전쟁이 나자, 선생님께선 남원 여맹으로 가 병원 일 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남진하여 순창으로 들어와 동 계면 여맹 일을 맡아 하시게 되었답니다. 그 때까지도 남편 소식은 알 수 없었다 합니다. 6월 하순, 날씨가 엄청 더워졌는데, 예전 살던 집에 가보니, 누군가 전하 길, 그 분이 다녀가셨다 하더래요. 그렇게 서로 어긋나 고, 부슬부슬 비는 내리는데 도당에 가보라는 말을 듣 고 애기를 들쳐업고 전주까지 백리 길을 걸어 하루를 가니, 인민위원회에서 '야영 훈련소'로 가보라 하더 래요. 그래 부대를 찾아 가보았으나 만날 수 없었답니 다. 면에서 알던 사람이 일러주길, 그부대는 남진하여 이미 떠났노라고. "영화나 소설처럼 꼭 그러대, 부슬 부슬 비가 내리고…" 나중에야 전해 듣건데,구빨치였 던 그 분은 47년에 월북하여 정치학교를 거쳐, 태백산 빨치산으로 활동하다가, 서로 어긋날 그 당시에는 남 해안 어딘가에 계셨다고 합니다. 음력 8월 무렵에는 김제 군당위원장으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네 요. 그 무렵, 후퇴가 시작되어, 면 여맹에 돌아와 보니, 서류들을 소각하고 보따리를 싸며 후퇴 준비를 하고 있더랍니다. 선생님께선 순창의 시부모님께 아기를 맡기고 입산 할 결심을 하십니다.

"내가 떠나서 계급투쟁을 해야지만 앞으로 계급이 없어지고 동등한 삶이 있을 것 아니냐. 상하가 있어선 안된다. '아가 나 물 떠갖고 오께.' 그러고 두고는, 인자, 동지들 만나러 가는 거지. 가다 들응께, 막 울어. 울음소리가 그냥 막 들려. 그냥 갔어. 시부모님께 애는 좀 키워달라고, 저하고 애비허고는 살아온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애 하나만 잘 키우라고. 그러고는 기양 산으로 올라왔어요…"

생애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당당하게 그를 동 지로 만나고 싶었다.

그러니까 27살에 입산하여 빨치산이 되신 겁니다. 51년 초까지 순창은 합법지구(해방구)였다고 합니다. 그 때,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시동생도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입산해 있더랍니다. 4년 만에 선생님과 그 분, 그리고 시동생 셋이서 마주 앉았다고 합니다. 그 분이각오를 물으시더랍니다. "생포란 있을 수 없다. 각오가 되어 있는가?몸조심하고, 건투를 빈다."

헤어지면서 문득 뒤를 돌아보니, "그 분도 똑같이 돌아보고 섰대?이렇게 손들어주면서…"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 나는 내 생애에서 젤로 보람있게 산 것은 저기서 산거야, 산에서. 아조 큰 포부는 그대로 갖고, 걍 내가 하고 싶은대로 허고 다녔으니까. 물불을 가리지 않고, 걍 우리는 차별이 없었어요. 그것이 좋았다고. 나같이 봉건사상에 쩌들은 사람이 다 벗어버리고. 클 때부터 그것이 싫었거든. 걍 어디 도망이라고 가고 싶었어. 그래서 여성차별 안되지."

51년 7월, 휴전회담이 시작되고, 공세에 쫓겨 군당 조차 개인 비트로 흩어지고 그럴 때, 남원 군당도 지리 산으로 들어가 여름을 났는데, 선생님께선 면당 여맹 위원장으로 달궁에 있었고, 그 분이 뱀사골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 가까이 있었으면서도 굳이 만나러 가진 않았다고 하시네요. "자존심 때문인 가, 아무튼 당당하게 동지로 만나고 싶었던거지."

51년 겨울 1차 총공세, 52년 봄 2차 총공세

선생께선 남원에서 체포되어 광주 포로수용소에 몇달 간 있었다 하십니다. 더러 알려져 있는 바이지만, 그 포로수용소라는 것이 식사도 부실하고 위생조차 엉망이어서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합니다. 전염병이 돌아 설사병으로 많이 죽어나갔는데, 여자들이 그 병에는 더 강해선지, 남자들이 더 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철조망으로 갈라 놓기는 했지만 저쪽이 철망 사이로 건너다 보이는데, 설사가 어찌나 심했던지남자들이 바지조차 입질 못하고 아랫도리에 담요를두르고 엉거주춤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였답니다.

수용소에서 심사라는 걸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재판 순서가 일찍 돌아온 편이었다고 하네요. 그 때, 너네 남편이 널구출하러 습격을 올까봐 빨리 넘기 는 거라고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52년 7월 17일,군사재판.

처음 '사형'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차분했는데 '20년' 이라는 소리에 오히려 심란하니 고민이 되더랍니다. 그 뒤, 광주형무소에서 대전으로, 대전에서 청주로 오게 되었는데, 60년, 동생 분이 밖에서 재심 청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전향공작이 성성했는데 선생께선 "살아보고 나서 평가하겠다." 고 단호히대항했다고 하십니다. 일제 치하에 태어나 살았고, 북만주에 있다 해방되어 나왔다. 그리고 인공에서 제대로 살아보지 못했는데, 살아봤어야 이게 좋다 저게 나쁘다할게 아니겠냐고, 살아보고 나서 평가하겠노라고…

60년 봄, 4 · 19 직전에 옥에서 나오셨습니다. 그 다음해, 동상을 앓던 왼쪽 팔을 절단 수술로 잃으셨습니다. 선생께서 나오신 뒤, 전향공작이 잔혹하게 심해져여러 동지들이 옥사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은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먼저 동생네 집으로 갔다가, 친정 어머니께서 오셔서 밤에 살짝 동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10년 간 부안에서 살다가 73년, 서울로 올라와 '신개발지' 성남에 자리잡고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옥에 있을 때는 동지들이라도 있었지마는 따로 나오고보니, 외롭고 어려운 생활에 집요한 감시까지 더해 셋방살이를 한군데서 오래 못하고 옮겨다녀야 하셨답니다.

93년 초까지 그랬다고 하네요. "음력 정월 초하루에 전화가 오는거야. 정보계라면서 묻더라구…"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선생님께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하나, 글을 깨친 뒤, 역사소설류를 많이 보셨는데 그 중 여장군전이라는 게 있답니다. 집안에선 보통 아낙으로 정성을 다해 낭군을 받들고, 전장에 나가서는 남편을 부사령으로 거느리며, 당당한 장군으로 싸움을 이끈다는 멋진 여장군 이야기.

또 하나, 북만주 시절에 듣던 백두산 부대 이야기. 선생님께선 그 때, 어떤 세상을 이루어 살아야 하는 게 옳은 지, 당신 생의 좌표를 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 생을 지켜준 것은 동지애와 굳은 신념, 그리고 철저한 규율이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지 난번에 통일광장 후원회원들과 함께 지리산 다녀온 이야기를 하시네요. 젊은 회원들이 올라갈까 말까 하 면서, "선생님 가시면 저희들도 가구요…" 그러더랍 니다. 이제 몸이 먼저 늙어 쉬이 피곤하시고 다리도 아 플뿐더러, 숨소리가 당신 귀에 울릴 정도로 숨이 차는 데도 기어코 천왕봉까지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당신들께서 딛어 오신 그 발자욱이 뒤에 오는 우리 를 이끄는 길이 됩니다.

그리하여··· 선생님 뵙고 돌아와 이 노래를 다시 읊 어봅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있어도 기억 속에 없는 이 있고 잠깐 만나도 잠깐 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

- 리춘구 님의 「심장에 남는 사람」 中에서- 🗥

새봄이에게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부모

김호 '후위회소식' 편집위원

지 곧 아이 엄마가 될 학생 운동 후배 강병식과의 인 터뷰는 이야기를 풀어갈 첫 실 마리를 찾아가기가 힘들었다. 지금은 전상봉 의장의 부인으로 서 강병식이지만 97년 강병식은 서총련에서 함께 집행부를 하며 투쟁을 함께 한 동지였기 때문 이다.

이보다 어렵고 더 엄혹한 시절을 자신 스스로 투옥의 길도 마다 않고 걸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웃는 모습의 병

식이었기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담담하리라 생각했 던 필자는 이내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착잡한 느낌 에 사로잡혔다.

국보법의 칼날이 예전처럼 자신에게만 향한 것이 아니라 국보법이 뭔지도 모르는 태어나지도 않은 새 생명에게까지 그 아픔을 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인터뷰 중간중간 태어날 아이와 아이의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머금는 한 생명을 품은 예비엄마 강병식이 필자의 앞에 있었고 그 표현 못 할 슬픔이 다가와 예전과는 다른 병식이로 보였던 것이다.

"선배 참 신기하지!아이가 뱃속에서 막 움직이다가 도 아빠가 새봄이에게 보내준 편지를 내가 읽으면 아 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아빠의 편지에 귀를 기울이거 든…"

추석을 앞둔 9월 2일 영장제시도 하지 않은 서울지 방경찰청 보안과 형사들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 봉 의장과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을 연행하고 사무실 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다.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기에 그 이유라는 것을 기술한다는 것이 유치찬란하지만 그 썩어빠진 법을 신주단지 모시 듯 숭배하는 어리석고 숭악한 무리가 있어서 공소장의 내용을 기술해 본다면 이런 것이다.

국가보안법 7조 1항 찬양고무 혐의, 3항 이적단체 결성혐의, 5 항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 중 첫째, 1항의 이유로 북쪽의 주장이 옳다고 동조했다는 것이 다

둘째, 3항의 이유로 '연방제

통일',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 미군 철수' 등 북에서 주장하는 바와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셋째, 5항의 이유로 여중생 사건과 부시방한 반대사 건 때 제작한 반미와 관련한 표현물을 이적표현물로 걸은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이니 수구공안 세력이 신주 모시듯이 하는 국가보안법에 의하면 한 청은 당연히 위법이다. 지난 9월 4일 대한민국의 서울 지법 421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형사합의22부 재판장 김상균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고려대 총학생회장 김지은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북한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여유를 가지십시요. 세월이 지나면 (자신의 생각이) 잘못됐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정도나 편향적 태도는 다양한 사고를 키워야 할 청년의 입장을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해 좀 더 공부를 해보십시요"

자신이 대학시절 한때 고민했던 이데올로기 문제에 대한 경험담까지 털어놓으며 이 같은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는 김상균 부장판사는 "그러나 북한에 동조하는 한총련의 주의주장은 우리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으로 용납되기 어렵다"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든지, 한총련이 이적단체가 아니라는 피고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한다.

최소한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도 인정하지 않는 국가 폭력이 오랏줄로 꽁꽁 묶은 피고를 앞에두고 다양성 운운하는 그 뻔뻔함이 한편의 코메디를 능가하지만 여전히 북한이 반국가단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김상균판사와 같은 부류의 '국가보안법=자유민주주 의' 사상에 의하면 전상봉의장 또한 이와 같이 어리석 고 숭악한 무리에 의해서 한치의 예외도 없이 이런 코 메디 같은 상황에 곧처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부산 아시안게임에 북측 선수단과 응원단이 대거 참가하고 북측의 응원단과 시민들이 만나 한자리에서 "조국은 하나다!", "통일조국!"을 외치는 지금 김영삼정권도 아닌 김대중정권 하에서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병식이는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홀몸이 아닌한 생명을 품은 부모로서의 심정이야…

하지만, 세계일보의 스트레이트 기사를 제외하고 전 중앙일간지는 상식과 천륜을 저버린 이 사건을 철저 히 외면했다. 병식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대한 민국의 언론들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체념하고 순응해버린 것이다. 친일파가 친미를 등에 업고 지배 계급이 된 사회, 일본군장교출신 박정희 망령과 승리 이데올로기가 판치는 세상에서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헌데, 9월 13일 보도된 이북의 조선중앙방송에 의하면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북한의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지금 북녘의 전체 청년학생들은 남조선 경찰당국이 한국 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과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을 보안법에 걸어 연행한데 대해 격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또 '더욱 참을 수 없는 것은 바야흐로 다가오는 금 강산 북남해외청년학생 통일대회를 앞두고 이 대회의 주요 참가단체인 한청 지도부 성원들을 연행함으로써 대회 말살 기도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 9월 13일, 연합뉴스 -

이러한 차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우연 히 10월 11일 방영된 SBS의 이북응원단에 대한 취재 를 보면서 그 차이를 필자 나름대로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 응원단에 대한 한국신문 기사 읽어봅니까?" "네. 다 읽어봅니다. 읽어보고 나서 우리들끼리 평 가를 하고 올바르게 쓴 기자의 기사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하고 그런 기자와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눕니 다."

이 글을 쓰는 필자가 다른 국가보안법 사건의 판결을 내린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한청 사건과 관련하여 문제 제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행위에 대해 준엄히 평가하고 역사의 기록에 남기기 위함인 것이다.

6 · 15공동시대를 맞이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에게 부산시민들이 "조국은 하나다!", "조국통일!"의 응원구호를 함께 외치며 북에 동조하면서 '우리 헌법 상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건이 연일 벌어지고 있는 지금 합의22부와 같은 판단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운운하는 앵무새처럼 반복된 판결이 내려질지를 두고보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제 2개월 후면 태어날 강병식과 전상봉 의장의 자식인 새봄이에게는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부모의 자랑스런 역사를 그리고 김상균같은 부류의 인간들에게는 자손대대로 치욕의 역사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회원이 간사가 되었어요!

이창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간사

라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에 기쁜 일이 생겼다. 간사가 한 분더 늘은 것이다. 그것도 외부에서 영입되어 온 것이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에서 간사가 나온 것이다. 이는 어쩌면 매우 정상적인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자연스러움에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에 의미있는 경사이다.



『…… 먼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사회운동에 있어 국가보안법 폐지 및 양심수석방에서 역할을 더욱 증대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열매맺기 위해 더욱 역량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운동의 실천이 다방면으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다양하게 양심수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장님이 도맡아 하시는 대외연대사업을 간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상근 간사가 회장님의 연대사업을 돕고 후원회 사업의 특성상더욱 전체 사회운동과 밀접한 후원회의 일상업무를조화롭게 풀어 가면서 후원회 집행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후원회의 일상업무를 전반적으로 관장하며, 이를 안정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의 상근 간사가 필요 합니다. 자칫 연대사업이 많아지는 가운데 밖으로만 사업을 하게 되면 안의 일상업무가 소홀해지기 마련 입니다. 따라서, '양심수 후원하기', '후원회 소식' 등 후원회 고유 일상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정상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정문적인 간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각 회원소모임이 발전하는 등 회원들의 활 동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회원교육 및 각종실천사 업 및 모임 관리 등 회원 사업을 전문화시켜 회원 들에게 더욱 정성을 기울 여야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회원사업을 관리 할 간사가 필요합니다. 이 간사는 회원들과의 유 대관계가 높은 회원들 속 에서 스스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며 비상근의 형태로 존재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위의 글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발전된 조직체계를 준비하며" 라는 제하의 문서에 실린 글을 퍼온 것이다.

이제 민가협 양심수후원회가 더욱 자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회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간사를 회원들 속에서 내온 것이다. 이는 1000여명이나되는 회원들을 보다 더 잘 관리하고, 그들과 조그마한 것이라도 더욱 실천적으로 도모하기 위한 본격적인노력의 시작이 될 것이다.

1. 결의

이미 송창학님은 2000년 1월 '후원회 소식' 99호 이런 회원 난에 '토끼의 간' 이라는 제목의 글로 소개된적이 있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이 지나 다시 간사로서 소개되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남들은 한 번 나오

기도 힘든 란에 두 번씩이나…

나이 40세의 아저씨, 구로시민센터 이사 주경임님 (35)의 남편, 초등학교 1학년 송인영(여), 3학년 송인석(남)의 아빠, 농협 직원, 구로동 사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 등이 송창학님을 단순하게 소개할 수 있는 낱말들이다. 지금은 이것에서 하나가 수정되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이 아닌 '간사'로 말이다.

"기존 간사들의 활동을 보면서 회원으로서 함께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 5일근무제를 하면서 시간이 남고, 그전에도 회원으로서 열심히 하려했는데이 왕이면 회원들 중에서도 집행부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게 되었어요. 상근자와 비상근자의 간격도 줄어들고, 회원들 스스로 참여하고 이끌어가는 모습이 생겼으면 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자랑스러운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원사업 비상근 간사가 되었다.

"최근 후원회의 활동이 활발해고 신입회원도 들어 오면서 기존 회원으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기존 회원들과 신입 회원들과의 다리역할도 하고, 또 회원 입장에서 후원회를 잘 운영해보고 싶은 생각에서 출발했어요."

우리에게 마치 좋은 교회의 집사와 같은 든든한 간 사가 생긴 것이다.

2. 집안문제

집안에서는 반대했다. 열심히 하는 회원이면 됐지, 왜 간사까지 하냐고 했다. 주로 부인에게서 말이 나왔 다. 애들은 말을 잘 못하니…

간사가 되면서 토요일의 생활상이 달라졌다. 이전에는 애들 학교 데려다 주고, 한숨 자고, 밥먹고, 오후 국가보안법폐지 캠페인에 참가하면서 하루를 보냈는데, 지금은 오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집행부회의에 참여하고 밥먹고 오후 캠페인을 준비하고 참여하면서 보낸다.

부인인 주경임님도 구로시민센터에서 맹활약중인

여성활동가이다. 낮에는 공부방, 저녁에는 회의 등으로 시민센터활동에 눈코 뜰 새 없다.

이런 와중에 아이들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본다. 이 제 아이들은 예전부터 부모님들의 현장(?)에 줄곧 따라다녀서인지 스스로 놀기도 잘 하는 등 다 이해한다고 한다.

하지만, 부모된 당사자들의 마음은 항상 안쓰럽다. 그리고, 집안에 많이 신경쓰지 못하는 것이 서로에게 아타깝다.

"솔직히 살림은 많이 못 도와줘요. 주로 주경임씨 몫이 되요"

그래서 불만(?)이 생긴 모양이다.

3. 희망

"직장다니라, 간사하라 힘들겠죠, 책임지겠다고 할 때 심리적 부담도 많이 되죠. 하지만, 책임감 때문에 긴장감으로 생활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더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보람도 생길 것같아요."

그는 12년째 직장생활하는 베테랑답게 간사의 책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

"12년 직장을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자리잡히기도 하고 했는데, 막상 돌아보니 후원회가 없었다면 단순 한 사회적 객체로서 삶의 의미가 별로 없었을 텐데 후 원회를 하면서 오히려 삶이 풍성해진 것 같아요."

"회원사업을 잘 하는 것은 급격한 틀의 변화가 아닌, 따뜻한 정이 넘치게 회원들 간의 조화를 일구고,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으면서 공동체적으로 후원회가 운영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귀엽게 잘 봐주세요. 간사라는 직함이 생기기 이전과 변함없이 열심히 활동하는 회원으로 살겠습니다. 관료적이 되면 많이 질책해주세요."

이제 간사가 3명이나 되는 민가협 양심수후원회는 회원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석방' 그 날 까지 굳건히 우리의 현대사 속에서 스스로에게 빛나 는 항해를 거듭할 것이다.

'통일사진전' 이면 더 좋겠지요.

그냥 준영이라고 부를께요. 호칭이야 부르고 싶은대로, 편한대로 붙이는 게 좋으니까요. 괜찮죠?

안녕하세요. 반갑네요. 볕좋은 가을 날씨와 함께 날 아온 편지에 고마운 맘이 앞서네요. 마음 쏨쏨이가 이 뻐서 그런 모양이에요.

개학한 지도 한참 지났는데 어때요?

가을 볕만큼이나 좋은 시간들로 가득차 있기를 바래 봅니다. 그 사이 추석도 지났고 가을도 완연히 자기 자 리를 잡았네요. 무엇을 하든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계 절이구요.

사진을 전공한다구요?

사진을 전공한다니 갑자기 며칠 전 신문에서 본 사진들이 떠오르네요. 아신안게임에 참석한 북녘 선수들이며 단일기를 앞세우고 공동입장하는 모습이며…

그중에서도 제 시선을 고정시킨 것은 북녘 응원단의 모습이었죠. 웃음 가득한 얼굴에 엷게 화장한 모습이 시선을 잡아끄는 걸 어떡해요. 직접 보았더라면 더 좋 았을 것을… 아쉬움이 많지만 그래도 뿌듯하더군요.

분단 이후, 북녘 동포들이 이렇게 정겹게 성큼 다가 선 적이 없었을 거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제소자건 교도관이건) 모두 입이 닳도록 얘기하네요.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에요.

준영이도 당장 부산으로 달려가는 게 어떨까요?

생각만 잘하고 준비만 조금 한다면, 좋은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을테니깐요. 이런 사진들은 의미도 많을거구 나중에라도 소중할 거예요. 그리고 좋은 사진은 좀 보내주어도 좋고(좋은 정도가 아니지요), 하여간 여러 가지로 의미있는 아시안 게임입니다.

한편에선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갇혀 있고 여전히 처벌받고 있지만 이번 아시안 게임처럼 단합통일의 기운이 높아진다면 그 끝이 머지 않았으리라 생각해요.

가을 학기 마음 먹은 것만큼 공부 열심히 하구요 계획한 목표도 꼭 이루길 바래요. 다부진 마음먹고 노력하리라 생각하구요.

좋은 결실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힘내세요.

덧붙여 좋은 사진 많이 찍어서 졸업전에 사진전도 갖길 바래요. 왕준영의 '통일사진전' 이면 더 좋겠지 요.

날씨 차가워지고 있네요.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덧붙여!

후원회 선생님들, 일꾼분들께 안부 전합니다. 건강하시구요.

자주 연락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언제나 투쟁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10. 3. 안동에서 준혁 드림

[●]손준혁님은 1998년 6기 한총련 의장, 영남대 총학생회장으로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2001년 5월 21일 구속되어 실형 3년을 선고받고 현재 안 동교도소에3001 번으로 수감중입니다.

한청 회원이 구속된 의장에게 보내는 편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며 목숨을 내걸고 투쟁하겠다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를 기억합니다...

차마 그 끝을 정하지 못한 낮 같은 어둠입니다 사람들은 낮이라 말하고 우리는 어둠이라 말합니다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여명이 두려워 저들은 유리창에 자꾸만 지워지지 않는 검은 입김을 불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마음으로 봅니다 수없는 시간을 달려온 별빛의 의지로 봅니다

동트는 새벽의 아름다움도 대낮처럼 밝은 세상의 눈부심도 그가 갇혀있는 그곳은 여전히 어둠이고 우리가 서있는 이곳도 아직은 겨울입니다

여전히 걷히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가 있는 곳에 별빛 하나 대기 위하여 우리가 길을 놓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당위보다 앞서 다가오는 당신과 나의 아픔과 슬픔은 여전히 우리가 베고 자야할 무기인가 봅니다

아직은 말입니다



●이 글는 무명의 한청 회원이 지난 9월 2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청 의장 전상봉 님께 보낸 편지시를 실은 것입니다.

하느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고광희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간사

'의료공공성 강화, 주5일노동제, 병원인력확보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학연금제도개선'등 그렇게 무리하다고 볼 수 없는 요구를 하던 경희의료원과 가톨릭중앙의료원에 9월 11일 병원측의 요청으로경찰병력이 투입되어 많은 여성노조원들이 성추행 사례까지 당하며 연행되었습니다.

당시 구속되었던 이숙희 보건의료노조 상황실장을 면회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은 7일은 병원노동자 들이 환자들 곁을 떠나 거리에서 투쟁을 한 지 138일, '민주화의 성지'명동성당으로부터 온갖 푸대접과 흘 대를 당하며 들머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지 13일째가 되던 날이었습니다.

구멍 송송 뚫린 회뿌연 아크릴판 너머로 보이는 이숙희님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할 듯한 씩씩한 큰 언니의 모습으로 다가 왔습니다.

항상 펄펄 날아다니다가 갇혀 지내려니 너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들으며 필자는 순간 바깥에서 동분서주열심히 일하셨을 이숙희님의 모습이 가히 상상이 되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하지 못함을 미안해하시며 안에서도 그저 밖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걱정이 가장 크고 무기 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만나기 위해 명동 성당에 제일 가고 싶다시던 이숙희님.

다행히 조합원들이 자주 찾아와서 소식도 전해주고 또 힘내라는 편지글을 많이 보내주어 요즘은 그 편지 들을 읽으며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조합원들이 더 이상 고생하지 않고 그들이 좋아서 선택했던 아픈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 사랑으로 치료 하고, 일하며 행복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소 망이라는 이숙희님은 잘 타결되어 얼른 종결되었으면 좋겠는데 '직권중재'라는 '노동계의 국가보안법'을 들이대며 나온 가톨릭중앙의료원은 해결의지가 없는 듯해서 많이 속상하다 하셨습니다. 함께 투쟁을 시작했던 경회의료원은 파업 119일째 인 9월 18일에 극적으로 노사합의를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톨릭중앙의료원 노동자들은 명동성당 차디찬 시멘트 바닥만큼이나 차갑게 대하는 천주교 서울대교구에 조속한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찬이슬, 찬바람을 맞으며 매일 밤을 거리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잠시 성당엘 다녔고 지금도 가톨릭에 대한 신뢰와 조만간 다시 성 당엘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있던 필자로서는 가톨릭중 앙의료원이 십자가를 부여잡고 있는 여성노조원의 손 가락 하나하나를 떼어 꼭 무자비하게 연행했어야만 했는지 아니, 그런 사태를 만들지 않고 사랑과 평화라 는 가톨릭 이념에 기초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 던 건지 묻고 싶습니다.

병원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호소할 데라곤 가톨릭 중앙의료원을 관할하는 서울대교구뿐입니다. 그래서 서울대교구가 있는 명동성당에 들어올 수 밖에 없었는데 명동성당에서는 '확성기 사용으로 미사를 방해하고 계단점거로 인한 통행불편, 농성천막 설치와 숙식으로 인한 업무차질'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이의 아픔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기주의적인 행동이며 폭력이라며 5차례의 퇴거명령만을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명동성당에 있는 신부님들과 수녀님, 일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기주의적인 행동이 무엇이고 폭력이 어떤 것인지를 모른단 말입니까.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 겠습니다

'들머리 연대의 문화제'가 몇 회 지속되기도 전에 하루라도 빨리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제정신을 찾아 노조원들에게 백배 사죄를 하고 문제가 잘 해결되어 환자들 곁에서 환히 미소짓고 있는 백의의 천사들을 볼수 있게 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용케도 비를 피해간 참 즐거운 하루

김혜순 '후원회소식' 편집위원, 음시롱감시롱 총무

찹쌀에 현미랑 기장이며 찰보리, 콩 등을 섞어 안 친 뒤 소금간을 하는데 천둥 번개 를 동반한 비가 대책없이 내린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제 우케 널은 도토리가 생 각나서 비설거지 하러 가면서도 얼 른 갈피가 잡히지 않는다.

모처럼 만에 지 역적으로 가까운

남한산성을 간다 하기에 뒷풀이 책임까지 맡아 왔는데.....

맘은 늘 있지만 두 아이들 데리고 10시까지 주로 북한산을 오르는 후원회 산행을 다니기란 쉽지가 않다. 아이들이 없을 때 구리시에 살면서 수락산을, 지금 여섯살인 성재가 아주 갓난 아기였을 때 단대 법사학회 총각들이 업어준다하기에 그말 믿고 오른 관악산이 전부다. 그러니 이번 산행은 모처럼 만에 다가온 행운인 것이다. 거기다 성곽을 돌면서 있을 한상권 교수님의 강의가 여간 욕심나는 게 아닌데......

이천에 사는 송금숙 회원과 함께 차를 타고 광주 쪽에서 산을 오른다. 산을 가로지르는 자동차 도로가 있고 그 주변은 온통 먹자판이다. 군데군데 흠집난 모양새가 쥐가 갉아먹은 옥수수 같아서 못내 씁쓸했다.

나도 우아하게(?) 그 관통도로를 지나 다시 성남으로 가서 회원들이 기다리는 유원지에 다다르니 11시



30분이 다됐다. 온전하게 우리를 기다린 것은 아니 라지만 나이드신 선생님들께 죄송 하였다.

앞서거니 뒷서 거니 산을 오른 다. 산은 벌써 가 을로 접어들었다. 단풍들 채비를 마 친 나뭇잎들이 한 결 여유 있어 보 인다. 도토리며 밤도 이미 다 떨 구었고 한가롭게

핀 들국화며 한껏 맛이 든 보리독도 여기저기 열렸다. 남한산성 땅이 기름지다더니 그 말이 사실인 듯하다.

한참 재밌게 산을 오르며 저기가 남문이다, 환호성을 지르는데 마름모꼴로 쌓은 성곽의 일부가 보인다. 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저런 모양새는 일본식담장의 모습이라 한다. 어디 가나 사라지지 않은 일제의 단면을 보니 여간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었다.

참, 남문을 향해 오르다 약수터 근처에서 잠시 쉬었는데 민가협 상임의장을 맡고 계시는 조순덕 어머님께서 재밌는 일화를 하나 들려주셨다.

73년쯤인가, 가족들과 모처럼 나들이를 나와 맛있는 삼겹살을 구워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요란한 굉음과 함께 비행기가 지나가더니 온 세상이 난리가 난 것처럼 소란스러워서 전쟁이 일어난줄 알고 짐들은 그대로 둔 채 아이들만 챙겨서 부랴부랴 내려왔

는데 이곳이 바로 그 장소란다. 이북에서 이웅평이 비행기를 몰고 넘어왔을 때의 얘기라니 세상 참 많이 변했다. 부산 다대포항에 정박해 있는 이북 배와 응원단들을 보기 위해 식탁을 베란다로 옮긴 부산 시민이 있다 하니 말이다!!!

남문에 오르니 저 멀리 성남시가지도 보인다. 이제 까지는 남한산성을 돌기 위한 준비단계였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성곽순례가 시작이다. 남문에 올라 자리를 잡고 한 선생님의 말씀을 들었다.

산성을 쌓은 시기는 삼국시대로 올라가지만 성의 중 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여진족의 침입을 막고 자 승군을 동원하여 기존의 토성을 석성으로 쌓은 조 선 후기였다.

흔히들 남한산성을 병자호란(1636) 당시 인조가 청과 군신의 관계를 맺은 치욕의 현장이라고 이름하지만 나라를 지키려는 호국정신과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에 목숨을 바치는 선비정신이 깃든 곳이라 한다. 남한 산성에 피신한 인조가 마지막 보루였던 강화도가함락되자 이곳에서 40여 일을 항전했으며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의 태세로자기 역사를 지킨 삼학사의 올곧은 정신이 살아있는곳이어서 더욱 그렇다.

인조가 삼전도에서 머리를 아홉 번 조아리고 군신의 관계를 맺은 뒤 삼학사와 왕자 2명이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갔다. 그중 소현세자는 죽임(?)을 당하고 나중에 효종이 되는 봉림대군이 왕위를 계승한 뒤 복수(復讐) 와 설치(雪恥)를 주장하며 우리가 곧 문화의 중심이라 는 중화사상을 내세웠다. 이는 우리 문화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시대정신으로 나타나고 미술 쪽에서는 우리 의 산천이나 실제 모습을 그리는 진경산수로 나타나 게 된다 한다.

남문에서 수어장대까지 오르는데 가을이 한창이다. 수어장대에 올라 매바위를 중심으로 앉아서 설명을 듣는 사이 그새 권오헌 선생님이 마당을 쓸어 점심먹 을 자리를 잡아놓으셨다. 뭐니뭐니해도 도시락을 먹 는 것이 산행의 백미가 아닌가!

민가협 두 어머님들이 넉넉히 찰밥을 해오시고 또 선생님들이 추석 지짐들을 싸오고 과일이며 밤 등으로 도시락 챙겨오지 못한 사람까지 배불리 먹었다. 다 먹어갈 즈음 날씨가 흐려지더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기온이 떨어졌다. 우선 급한대로 수어장대로 몸을 피한 후 점심을 나눠먹듯 여벌의 옷을 나눠입었다. 산에 오를 때에는 항상 잠바나 조끼 등을 챙겨야 한다는 신현익 선배의 애정어린 충고를 들으며. 그래도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고 빗방울에 패이는 땅을 바라보니 그런대로 운치가 있었다.

지나가는 비였나? 조금 있으니 비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또 재잘거리며 서문으로 향한다. 자연스레 마주치는 사람과 짧고 깊은 대화를 나누며.

서문에 오르니 한강이며 삼전도비며 성남비행장 등이 보인다. 멀리 롯데월드도 보이고. 이렇게 보니 아파트나 다닥닥 붙은 집들이 무슨 인형들이 사는 공간같다. 저 속에 지지고 볶는 인간의 역사가 있단 말인가? 저 작고 초라한 공간에.

양지바른 곳에 자리를 잡고 간단한 소개시간을 가진 뒤 내려왔다. 권 선생님 아버님 기일이라서 홍성까지 내려가야 하신다 해서 마음이 더 급해졌다. 내려오다 보니 길을 잘못들어서 다시 버스를 타고 처음 산행을 시작한 곳으로 옮겨왔다.

산행을 마치고 경기남부지역 처자들이 한턱 낸다며 뒷풀이 장소에 올라가 자리를 잡고 앉으니 또 시원한 소나기가 한차례 쏟아진다.

더 욕심을 내어 남한산성 곳곳에 숨겨져 있는 문화 재며 성곽을 둘러보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지만 비 와 숨박꼭질을 하며 용케도 비를 피해간 참 즐거운 하 루였다. 為

올바른 역사의식 유지의 길이 보여요!

이 용 준 민가협양심수후원회신입회원

스 심수후원회의 역사 교실에 참여한지도 만 9개월이 지났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후는 이제 나의 시간이 아닌 양심수 후원회의 시간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역사교실을 진행하시는 선배님들이 걸어주는 전화는 생활의 즐거움이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천주

교 신자이다. 천주교에서는 가끔씩 이미 세례를 받고 견진성사까지 받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특별히 교리를 학습할 기회가 없는 것을 문제로 받아들여 이른바 신 앙재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지속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있다. 양심수후원회의 역사교실도 마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정말 현장에서 운동 또는 실 천활동을 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의 사안을 두고도 본 질을 비켜 가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다분히 위험한 소 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양심수 후원회 역사교실은 크 게 두 가지 순기능을 한다고 본다.

첫째, 나처럼 현장을 떠나 - 나의 경우는 학원에서 학생운동 - 평범히 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 아무리 본 인이 올바른 의식을 지니고 있다해도 앞에서 언급한 대로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오류에 빠질 수 있 는 여지를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본다. 실제로 지금도 소위 과거 스타운동가들의 활동과 발언에서 느끼는 이상한 발언들은 올바른 역사의식을 계속 지니고 살 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다.

둘째, 가장 광범위한 계층까지 두루 다가갈 수 있는 대중사업으로 일반대중에게 열린 역할을 톡톡히 해내 는 기능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 오 해 없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대중사업의 의



미는 그간 우리 운동세력들이 펼쳐온 대중사업에 결함이 있거나 대중성이 없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광범위한 계층이라는 것은 진부한 이야기로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 6월 광화문에서 삼성동에서 '대한민국'을 외치던 청춘들과 지금 부산 골골에서 이북의 동포들이 왔다

고 서로 마주보며 열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실천하는 모든 민중들이 쉽게 문을 두드릴 수 있 는 잠재성이 담겨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금 역사교 실은 나처럼 소개를 받아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아무튼 역사교실을 계기로 조금은 무디어져 가던 나의 역사의식을 추스르고 때로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매주 토요일 탑골공원앞에서 진행되는 '국가보안 법철폐 거리캠페인'에 참석하여 실천을 하려고 바둥 바둥 애쓰기도 한다.

앞으로 양심수후원회의 역사교실에 많은 이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생업을 위하여 운동단체활동은 고사하고 의식조차 무디어져 가는 후배나 동기 그리고여러 선배님들이 이 역사교실을 소개받거나 알게되면그때 꼭 참여를 권하다.

남녀노소 모두의 진지한 경청과 질문, 이어지는 토론은 우리 삶을 살찌우며 의식을 지닌 민중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곰곰 생각하게 만들며 마지막의 비공식적인 뒤풀이는 역사교실의 백미이다.

끝으로 역사를 갈망하는 청소년과 대중에게 더 가깝게 다가갈 방도는 없는지 즐거운 고민을 모두가 깊어 가는 가을에 지혜를 모아보면 어떨지 제안해 본다. 高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 갔다 와서

김 수 룡 '통일광장' 장기수선생님



귀중하고 소중한 우리동포를 만나러 간다 아름다운 우리 형제자매를 만나러 간다

오랜만에 50년 만에 6·15 공동선언 위업으로 문이 열려 벅찬 마음으로 가슴에 안고

감격의 마음으로 희망의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내가 살던 유년시절 소년시절 부산으로 간다 명사십리 해당화 길을 걷던 그런 마음으로 부산에 간다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대회에 간다.

부산 사직운동장을 찾았다. 봉사원들의 안내대로 좌석으로 갔다. 자리에는 빨간배낭이 놓여 있었다.

뒷면은 청색으로 되어 있었다. 그 배낭을 열어보니 아름다운 만남의 안내 책 한 권과 조그마한 손전등 한 개와 주걱과 나무국자가 있었다. 이것을 가지고 손벽 을 치듯이 두드린다. 그리고 손전등은 켜들고 좌우로 흔들어 반딧불이 되어 장관을 이루었다.

드디어 공식행사가 시작되었다.

귀빈입장에 이어 선수단이 입장하였다. 44개국에서 온 선수단이 입장하였다. 보무도 당당하게 손을 흔들 고 흔들면서 속속 들어왔다. 지나 갈 때마다 주걱으로 박수를 쳤다.

우리나라는 맨 마지막에 등장했다. 북쪽 선수와 남 쪽 선수가 단일기를 같이 잡고 등장했다.

또 주걱으로 힘껏 박수를 쳤다. 입장이 모두 끝나고 퇴장한 후 식후행사가 시작되었다.

'해오름' '아름다운 만남' '번영의 소리' '아침의 나라' '함께 내일로' '조선은 하나'의 순서로 진행되 었다. 행사는 잘 짜여져 있었다. 우리는 경쾌한 장면마 다 주걱으로 "짝짝 짝짝짝" 박자를 맞추어 쳤다. 성원 들의 집체적 무용의 율동이 우리 집단무용과 닮아가 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핏줄도 하나, 언어도 하나, 조국도 하나,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가는 몸짓도 하나가 되자.

나는 이튿날 서울에서 오신 이구영선생과 나들이를 나갔다. 부산에 계시는 정헌용 선생의 자가용으로 태 종대로 갔다가 부산의 명물인 광안대교를 한바퀴 돌 았다. 광안대교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대회기간 에만 잠시 통과를 허용했다.

서울에서 오신 손님을 보내놓고 부산에 남아 통일응 원단과 함께 응원을 다녔다. 북에서 온 선수들이 경기 하는 장소마다 찾아 다니며 응원을 했다. 첫날 양산에 있 는 축구경기장을 갔다. 파키 스탄과 북쪽이 하는 경기였 다. 북쪽 응원단이 앉아 있는 맞은 편에 부산 아리랑 응원 단이 자리잡았는데 모두 붉 은 옷을 입었고 항상 100명 정도가 함께 하였다.

북쪽 응원단을 향하여 "반 갑습니다" 노래를 불렀더니 그 쪽에서도 같이 불렀다. 응

원의 열기가 뜨거워지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로 화답했다. 점점 열기가 더하여 그쪽 악단이 "우리는 하나" "고향의 봄"을 연주하였다. 우리 통일아리랑 붉은 응원단은 감격에 겨워 파도타기로 화답했다. "우-우-우" 하고 파도를 타는데 파도가 북쪽 응원단을 넘지 못하고 사라졌다. 우리 응원단은 다시 파도타기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가다가 사라졌다. 그래도 또 시도했다. 이번에는 더 큰 소리로 "우-와 우-와" 하고 파도를 보냈다. 이것이 웬일인가. 우리의 파도가 북쪽 응원단쪽으로 가자 북쪽 응원단이 모두 일어서서 "우-와---"하고 넘어 갔다. 나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 파도가 한바퀴 돌아 우리쪽으로 왔다. 이 파도가 하나가 되어 한바퀴 또 돌고 세바퀴를 연이어 돌았다. 나는 여기에서 통일의 감격을 맛보았다.

응원때마다 우리 붉은 응원단을 알아보고 손짓과 몸



짓으로 알아보고 감정을 통했다. 경기가 끝나면 북쪽 선수들이 꼭 우리 붉은 응원단앞에서 고개숙여 작별인사를하고 갔다. 경기가 끝나고 우리와 헤어지면 악단은 꼭 "백두에서 한라로, 우리는 하나의 겨레"를 연주하였다.

마지막 날 만경봉92호선이 정박하고 있는 다대포를 찾 았다. 만경봉호는 재일동포

를 공화국으로 실어 나른 배로 알고 있다. 그래서인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 때 이승만은 공화국으로 가 는 것을 시기하여 이 배를 폭파하겠다는 말도 했다. 그 런 배를 내가 여기에 서서 보고 있다.

다대포 어민들은 배가 다대포에 온다는 소리를 듣고 어선 170척으로 환영을 시도했으나 20척으로 제한되었다고 한다. 다대포 시민들은 '북에서 온 사람은 한 결같이 미인이고 세련되었으며 곱고 꾸밈없이 자연그대로이다, 이 미인을 보고 남쪽 총각들이 가슴앓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아무쪼록 반통일 가슴앓는 사람들이 가슴앓이 병을 고쳤으면 한다.

이번 15일에 붉은 응원단이 만경봉92호 선내 방문 신청을 하고 왔다. 이번 방문이 이뤄지면 사랑하는 형 제 자매들을 얼싸안고 춤도 추어보자. 🖨



알립니다

회원교육강좌

한상권 교수님의 역사강좌가 열립니다. 서로 서로 알찬 역사인식을 함양합시다.

일 시: 11월 3일 오후 2시 장 소: 낙성대 만남의 집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에서 내리세요!)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

한국청년단체협의회(이하 한청) 간부들이 이적단체혐의로 연행되는 상황에서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회원들은 반인권·반통일·반민주악법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하고 전근대적인 공안탄압에 항의하고 한청과 연대하고자 국가보안법폐지 거리캠페인에 10월부터는 종전처럼 격주가 아닌, 매주로 결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몰관계로 1시간 앞당겨 오후 4시부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매주 토 오후 4시~5시(1시간)

장 소: 탑골공원

또 다시 불어오는 '이적' 광풍

얼마 전 한국사회에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반인권·반통일·반민주악법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한국청년단체협의회'라는 수천명의 회원을 지닌 전국적 규모의 청년조직이 이적단체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부산이시안게임에 북의 응원단이 와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이적'이 웬말입니까? 수구냉전세

라고 아이는 게임에 국가 중된단이 가지 와제를 고으고 있는 모들의 지내에 이각 이 된 분 력의 반시대적인 공안타압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한청 전상봉 의장은 작년 8.15 평양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가 이적단체인 범민련 부의장이라 하여 이미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되어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전에 잡혔을 때와 똑같은 대공분실에서, 그것도 이미수사받은 내용과 비슷한 사건내용에 의해 구속 · 연행되었고, 한청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은 신원검사를 철저히 한 위커힐호텔에서 열린 올해 8.15 서울 민족통일대회에 남측 대표단으로 참가하여 북측 대표단과 담소를 나누기까지 하였습니다. 7월말부터 체포영장의 진위여부를 밝히라는 사회단체들의 요구도 묵삼한 체 가만히 지켜보다가 사람들을 마구잡이식으로 잡아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비상식적인 행위에 맞서 '한청' 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및 이적규정 반대투쟁에 힘차게 나서야 할 것입니다.

■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지도부 구속시건 경과보고

1.연행 및 구속 경과보고

●주요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제보)

- ▶ 7월 22일, 전상봉 의장을 비롯한 5-6명의 간부를 검 거하기 위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제보를 받음.
- ▶ 시무실 주변에 사복형사들이 빈번히 오고감.
- ▶ 8월 17일 저녁 8시경, 홍순석 부의장에게 제보전화가 옴. 내용은 전상봉 의장, 홍순석 부의장, 이승호 조국 통일위원장과 미확인 1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 어 있으며, 시효는 8월 31일까지이고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되어 있다고 함.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간부 검거 및 압수수색

- ▶ 9월2일 오후 3시10분 전상봉 의장, 이승호 조통위원 장이 형사들에 의해 체포, 연행됨(대한극장 3층). 체 포영장 제시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연 행이자 전상봉 의장 필목 부상 등 폭력연행
- ▶ 9월2일 밤 11시경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방문을 마

- 치고 귀가하던 정대일 사무처장이 20여명 형사들에게 강제연행됨(안국역 지하도).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행사로 정대일 사무처장의 안경이 깨짐.
- ▶ 조사를 담당하는 곳은 서울시경 보안수사1대, 옥인 동 분실이고 유치장소는 각각 분리수용. (전상봉-남 대문서, 정대일·중부서, 이승호-종로서)
- ▶ 9월3일 12시경 한청 시무실 압수수색. 약1시간 수색을 통해 각종 자료와 '국보폐지 국민연대'컴퓨터 등 압수해 감. 이승호 조통위원장 집 압수수색.
- ▶ 9월8일 8시경 정대일 사무처장 집 압수수색

2. 이적단체 규정 의도와 예상되는 사회적 파장

1) 수사내용과 적용 혐의

- 한청 결성 이전인 1999년부터 장기간(4년) 자료를 축적 하고 추적한 기획수사입니다.
- 주된 혐의는 '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한청을 결성했다'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죄이며, 한청 활동을 이적성과 폭력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적성의 근거로 드는 활동: 미군 양민학살 진상규명 활

동, 부시빙한반대투쟁, 미군범죄근절운동/ 연방제 통일 주장,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재일한국청년동맹과 연락, 범민련 남측본부 가입

- 폭력성의 근거로 드는 활동: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민주노총 탄압 중단, 비정규직 철폐, 주5일제 근무 등을 주장한 집회 참석

2)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려는 의도

- 이번 시안의 핵심내용은 이적단체 규정입니다. 간부 몇명의 구속에 그치지 않고 전국의 청년운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사회비판세력을 거세하려는 의도입니다.
- 남북축구대회, 이산기족상봉, 북측 대표단 아시안 게임 참가 등 연이은 민간교류와 화해의 분위기를 가로막고, 한청이 주요하게 참여하는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를 무 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 올 초부터 불어닥치고 있는 미국반대의 열풍이 여중생 사건으로 더욱 고조되자 이에 앞장서온 청년운동의 발을 묶어 민족자주의 흐름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 대선을 앞두고 진보진영의 총결집과 공동대응이 예상되자 각종 시국사건으로 판을 흔들고 진보진영을 각개격화하려는 의도입니다.

3) 이번 사건이 미칠 사회적 파장

- 얼마 남지 않은 '남북청년학생통일대회'에 한청이 참여 하지 못하거나 대회 자체가 끝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최 근 정부측은 금강산 인근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행사진 행이 어려운 10월 중순을 고잡하면서 실무접촉을 계속 불허하는 등 대회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 이렇게 되면서해교전에 대한 북측의 유감성명으로 다시 풀리기 시작한 당국간 회담, 민간차원 남북교류와 행사 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통일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결 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권력형 부정부패, 병역의혹과 태풍피해 등으로 민심이 어수선한 틈을 타 각종 시국사건이 발생하면 국민들의 보수심리를 자극하고 공안분위기가 창출되어 12월 대선 에서 특정세력에게 이득을 주게될 것입니다.
-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겪고있는 사회적 폐해 과 인권침례 사례는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개적이 고 대중적인 전국청년조직이 이적단체가 되면 이땅에서 이적규정을 피할 단체는 많지 않습니다. 청년운동 위축 에 그치지 않고 강자의 논리, 권력의 횡포가 법을 앞세워 사회 정반을 할퀴어 버릴 것입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소개와 이적규정의 부당성

1.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전국청 년조직입니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한청)는 전국각지 50여 곳에서 건 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기는 직장청년들의 자발적인 모임입 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경상, 전라, 제주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개별 청년회들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이 발표되자 청년들도 하나로 모이지는 공감 대를 형성하면서 2001년 2월에 전국규모의 청년단체로 창 립하였습니다.

누구나가 '대박' 으로 표현되는 일확천금을 꿈꾸고, '부 ~자 되세요' 라는 광고문구가 폭발적 인기를 누리는 작금 의 사회풍조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보다는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청 회원들입니다.

한청 회원들은 고단하고 힘든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 서도 미래의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 의지하고 정을 나누며 생기발랄하게 청년회 활동을 하는 2,30대 직장청 년들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발전, 건전한 청년문화 창달,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정이 감도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날 행사, 청소년문화행사, 무료한방진료, 무의탁노인 도시락 배달과 도배, 장애복지기관 활동, 골목청소, 아파트법률학교 등 어린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IMF시대가 되어 실업자가 양산되자 실직가정 후원사업, 실직자녀 무료공부방, 실직자 재취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시대의 아픔과 이웃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전통혼례, 대보름 지신밟기, 단오잔치 같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리는 행사와 00산 실리기 운동, 케이블카 설치 반대서명 등의 환경운동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청년들은 활달한 것을 좋아하고, 문화예술 감수성이 뛰어나며 지적 탐구심과 새것에 대한 모험정신이 강합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지향을 반영하여 90년대 중반부터 실시한 청년문화학교는 이제 한청 소속 청년회들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래교실, 풍물교실, 연극교실, 영화교실, 사진교실, 등산교실, 문학교실, 태견교실, 역사기행교실, 수화교실 등 각지 청년회의 특성에 맞는 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생동감 넘치고 예술성도 보장되는 대

중적 청년문화를 창조하고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것만 고집하지 않고 우리 사회를 폭넓게 비라보며 정의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실천활동에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권력형 부정부패와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처우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청 소속 청년회들은 집회, 서명, 사진전, 거리연설 등 여러 방식으로부정비리를 규탄하거나 노동탄압을 중지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한편 각종 선거에 직접 공직후보를 출마시켜 깨끗한 정치, 정직한 사회, 서민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에서도 화해와 교류가 크게 진척되었지만 여전히 냉전적 대결을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9.11테러 이후미국 부시정권의 일방적 패권주의로 한반도 주변은 전쟁위험과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를 시랑하고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청년들은 응당 긴장과 대결을 거두어내고 화해와 평화, 자주와 통일로 가는 길을 열어가고자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군 양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 및 홍보활동, 고물전투기를 강매하고 군사적 행동을 하려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하는 활동, 독극물 방류・여중생 사건 등미군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 반인륜 반통일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해를 알리고 6.15공동선언을 널리 전파하는 각종 활동, 지역차원에서 전개하는 주민통일문화제 개최 등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청년이 아니라면 그리고 전국조직이 아니라면 이렇게 수많은 활동을 열정적이고 입체적으로 펼쳐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는 우리에게는 소중한 조직입니다. 만약 전상봉 의장, 정대일 시무처장, 이승호 조국통일위원장 같은 청년지도자들이 아니라면 이렇게 수많은 활동을 질서정연하고 일관되게 펼쳐갈수 없습니다. 그래서 3명의 구속자들은 우리에게는 너무도소중한 동지들입니다.

바쁘고 지친 직장생활에도 서로 믿고 의지하며 소외된 이웃, 억울한 주변사람과 아픔을 함께 하는 따뜻한 심성을 가진 청년들의 보금자리,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움직이 는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청년조직이 바로 한국청년단체협 의회입니다.

2.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으로 규정하는 공안당국

의 수사는 부당합니다.

이러한 청년단체를 '북한의 시주를 받아 적화통일과 폭력혁명노선을 추구하는 이적(利敵)단체'로 규정하여 주요 간부들을 구속, 처벌하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2000년 남과 북의 정상이 만나 화해의 포용을 하고, 정부 차원은 물론 기업, 언론, 종교, 체육, 학계 등 각계각층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에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지나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주요 근거가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밝히겠습니다.

- 1) 반국가단체인 북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구성했고, 역시 북의 주장에 따라 자주·민주·통일을 주장하여 북을 이롭게 했다는 주장
- 공안당국의 주장과 달리 한청의 강령, 규약, 창립선언문 어디에도 북한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동조를 목적으 로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 한청 강령의 주된 요지는 한국사회가 외세에 대해 보다 자주화되고, 비민주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여 보다 민주화되며, 분단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 감으로써 결국은 민중들이 삶의 질이 점차 높아지는 복 지국가로 발전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이는 1980년 중반 이후 인문사회과학 학계 및 청년학생 들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았던 이른바 자주 · 민주 · 통일론에 근거한 것이고 자주 · 민주 · 통일론은 수십년간에 걸친 반외세, 반독재 투쟁의 실천적 경험과 그에 대한 평가, 우리사회의 모순구조에 대한 1970년대 이래의 치열한 사회과학적 논쟁 등을 집대성한 결과물로서, 우리사회의 진보를 위한 가치체계로 널리 인정되고있는 주장입니다.
- 한청이 주장하는 자주 · 민주 · 통일은, 한청의 전신으로 서 1989년 1월 19일 발족한 전국청년단체대표자협의회 이래 23년째 대다수 청년단체들의 지지를 받아온 정책노 선이자, 국내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사회운동단체와 사회 과학 학술단체가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 따라서 한청에 대한 평가는, 그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동일, 유사한지 여부' 라는 냉전적 기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 현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판인지 여부' 라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2) 한청 강령의 '연방제 통일' 은 북의 통일방안인 '고려민 주연방제' 에 동조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올바른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북을 이롭게 했다는 주장
- 한청의 강령 어디에도 통일방안으로서 '고려민주연방제' 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청의 강령 어디에도 '고려 민주연방제'를 동조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백로를 보고 까마귀라고 하는 억지주장에 불과합니다.
- 통일방안은 다양한 견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난 6.15 공동선언에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 점에 비추어도 '연방제'에 관한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바이를 '고려민주연방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지나친 왜곡입니다. 참고로 연방제를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 공안당국이 한청이 '대한민국의 올바른 통일정책' 추진을 저해했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그 올바른 통일정책이 무엇인지, 어떻게 저해했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밝혀야합니다. 그러지 않고 한청의 연방제를 범죄시하는 것은 통일방안이 여러개 있을 수 있는 현실에도 부합하지 않고, 통일방안 논의를 활성화하여 전 민족이 합의하고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는 올바른 통일정책 마련을 원천봉쇄하는 반민족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 3) 미군철수를 선전선동하는 정치연설에 박수를 친 행위, 양민학살 진상규명 · 미군기지 철수 등을 주장하며 부시 방한 반대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한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했다는 주장
- 우리에게 이익을 주며, 호혜평등의 원칙아래 우리 국민을 존중하는 미국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어린 여중생을 깔아죽인 미군, 잇따라 각종 범죄를 저지르는 미군, 고물전투기를 강매하는 미국, 부당한 통상압력을 기하여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미국, 우리 의사는 문지도 않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국은 더이상 아름다운 나라도, 자유 세계를 수호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 공안당국의 주장대로라면 부시방한과 동계올림픽 금메달 사건으로 연일 온나라가 들썩했던 반미여론 확산이 북의 지령에 의한 것이 됩니다. 대다수 국민이 북의 주장에 동 조한 이적행위를 한 것으로 됩니다. 북의 주장과 같다고 해서 미국반대를 외치지 못한다면 북에서 주장하는 생산 증가, 기술혁신, 교육발전, 노인공경 같은 이야기도 국가

- 보안법 위반이 되는 황당하고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 공안당국이 국가보안법 이름처럼 진정 나라를 지키려 한다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해치고 주권국가의 권위를 짓밟는 미군 범죄자들은 잡아들이고, 한국청년단체협의회 같은 건전한 시민사회단체에게는 큰 절을 해야미땅합니다.
- 미제라면 똥도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의 자연스런 반미감정을 대변하여 미군범죄 처벌을 요구하고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자는 주장을 반국가단체를 고무, 찬양, 동조하는 행위라며 탄압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도 모르고, 정의와 양심도 내팽개친 굴종이자 반민족행위입니다.
- 4) 북의 투쟁노선에 동조하여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전 개했다는 주장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주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 니,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어쩌면 유신시대 긴 급조치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독립지사들을 때려잡던 '치안유 지법'을 그대로 베낀 법으로 국민의 78%, 변호사의 93% 가 개정, 폐지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악법입니다.
- 전세계가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본 2000년 남북정상회담 과 6.15공동선언 이후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남북교류는 '북한=무력남침으로 남한정부를 무너뜨리고 적회통일을 하려는 반국가단체'라는 보안법의 대전제를 실질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장, 차관은 물론 정치인, 기업가, 언론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학자, 노동자, 농민, 청년, 여성인사 등 실로 각계각층이 평양과 금강산으로 잠입, 탈출하고 반국기단체 구성원과 회합, 통신을 하는 마당에 국가보안법 위반이 웬 말입니까?
- 유엔인권위, 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 인권침해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개폐 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화해와 통일이 무르익어가는 현실에도 맞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주장을 북의 시주를 받은 것으로, 적을 이롭게 하여 나라를 전복시키려는 것이라 강변하는 것은 사멸해가는 국가보안법을 부활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 ●이 글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규정저지와 구속자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자료 중에서 퍼온 것입니다.

'이적'의 근거 '주적론'의 문제와 현실

국청년단체협의회의 이적규정협의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이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측의 쌀이 북에 지원되고, 북측의 선수단이 남측에 내려오는 민족대화합 '이족' 잔치의 마당에 아직도 민족을 대상으로 '적을 이롭게한다'는 말이 존재하는 것이 신기할 지경입니다.

우리는 올 봄 진행된 '국방백서' 발간을 둘러싼 '주 적'표현 찬반논쟁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측의 양심 적 인사들은 '주적'이라는 개념은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며 반대했고, 결국 올해 말에 나오는 '국방백 서'에는 주적이라는 표현이 삭제될 예정입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어 아주 본질적인 군사적 개념의 '주적' 표현마저 사라지는 마당에 '이적'이라는 하위 특별법적 개념이 뼈젓이 활개를 치며 애국적인 청년 들에 대한 공안탄압을 일삼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합과 통일의 시대에 '이적' 이라는 말은 반 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 '주적' 과 '보조적' 의 모순〉

정부가 최근 임동원 특사의 방북을 계기로 맞게 된 남북관계의 해빙무드를 정착시키는 뜻에서 그동안〈국 방백서〉에서 사용해온 '주적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88년 이래 매년 국방부가 발행해온 국방백 서에 '주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은 아이러니하게 도 냉전체제가 해체되고도 한참 뒤인 1995년부터다. 판문점 남북특사회담 때 박영수 북쪽 대표의 '서울 불 바다' 발언이 도화선이 됐고 이것이 후에 국회에서 논 란을 빚으면서 대북 경계 차워에서 그러한 표현이 국 방백서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현재 유엔 가입 회원국만 190여개에 이르지만 그 나라 국방의 기본계획을 밝히는 '국방백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나라는 10여개국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해마다 국방백서를 발간하는 나라는 미국, 일본, 한국 등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국방백서'는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공식적인 국가 문서인 관계로 통상 '선린우호' 정책을 강조하면서 유 사시 자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철저히 대비한다는 취 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무리 안 보상황이 어렵다하더라도 "우리의 적은 XX이다"라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국제관례이다. 중국의 위협 아래 에 놓여 있는 대만이나 아랍권국가들로 둘러싸여 있 는 이스라엘도 특정국가를 주적이라고 지목하지는 않 는다.

군이 국가의 간성으로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보위하는 신성한 임무를 지는 것으로 족하지 무슨 '주적(主敵)'이 필요하고 '보조적(補助敵)'이 필요하단 말인가. '보조적'(?)이 쳐들어오면 손놓고 가만히 있자는 것은 더 더욱 아니지 않는가.

주적개념은 전시상황에서 군의 작전개념이지 남북이 정상회담을 열고 국방장관회담까지 하는 화해 · 협력의 무드의 평시에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다. 따라서 1992년 발효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 공동선언의 정신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적'이라는 말을 국방백서에서 고집할 필요가 있겠는가를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 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국 방이 된다면 휴전 이후 42년 동안 그런 말이 없었어도 군의 국토방위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면 '주적' 표현을 삭제하거나 수정한다고 할 경우 어떠한 대안이 바람직할까. 요컨대, '국방백서' 상국방의 목표는 94년도 당시의 국방백서로 돌아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곧,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표현이면 모든 상황을 포괄하게 된다.

우리는 흔히 국방을 논할 때 '물 샐 틈 없는 방어'를 강조한다. 또한 안보를 이야기 할 때 0.1%의 방심도 금물이라고 말하곤 한다. 우리 군이 그와 같은 전천후 방어태세를 갖추어 나갈 때 명실상부한 국방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유사시 '주적', '보조적' 가려서 대응한다는 뉘앙스를 만에 하나라도 풍겨서는 곤란하다고 본다.

이와 함께 '국방백서' 의 발간주기도 재검토할 필요 가 있다. 미국과 같이 세계를 경영(?)하는 초강국의 입 장에서는 해마다 발간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와 같은 지역국가가 별 다른 상황변화도 없이 매해 내용이 비슷한 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생산적이 지가 못한 면도 있다. 독일 등 일부 나토 동맹국들처럼 3~5년의 주기로 발간하거나 선거에 의해 새로운 대통령정부가 들어섰을 때마다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유엔 가입국들은 '유엔무기등록제도와 '군사비보고제도'를 통해 '국방백서'가 포괄하는 핵 심부분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고 미국, 영국, 스웨덴의 국제안보 관련 기관에서도 주요국의 국방태세를 주기 적으로 취합ㆍ정리하여 발간하고 있기 때문이다. 🚓

김경수/ 명지대교수 · 국제정치학

● 이 글은한겨레신문에서 퍼온 것입니다.

2002 회원 역사기행

우리 민족통일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철원, 양주, 연천, 파주지방 역사유적과 민족문화유산을 찾아서

10차 회원 역사기행 답사를 다녀왔습니다.분단 사슬에 가려진 경기북부 우리 강산의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이번 주제는 '통일' 입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을 맞아 북의 응원단 모습을 보면서 높아가는 민족대화합의 의지를 북돋우고자 다시 한번 경기북부로 통일역사기행을 가고자 합니다. 8년전 고석정 역사기행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의 그곳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노동당사는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새롭게 가는 천보산 회암사터와 임진강 징파나루터, 전곡리 구석기유적지 등은 역사유적의 멋과 우리 민족과 강산의 소중함, 유구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일깨워줄 것입니다.

가는 곳곳에서 우리는 다양한 현장을 통해 '우리 민족의 진로'에 대해 생각할 것입니다. 역사에서 항상 민족통일의 격전지가 되어왔던 철원평야를 바라보며 '통일의 상념'에 빠질 것입니다. 3·8선, 길마다 늘어선 부대, 초병, 주한미군 등에서 '통일의 소중함'을 더욱 각인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강원, 철원지방과 경기 북부지역 늦가을의 단풍과 함께 떠나는 이번 역사기행은 통일을 향한 우리의 고민을 아름답게 가꾸어 줄 것입니다.

●일 시: 2002년 10월 26~27일(1박2일)

●출발시간: 10월 26일 오후 2시 30분

●모이는곳: 노원역 롯데백화점 정문앞 광장

●회 비: 5만원

●문 의: 888-4470(모임방), 019-205-7937(이창희)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회장

결실의 계절 가을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계절 한 가운데 한가위가 있었습니다.

모두들 고향을 찾고 차례를 지내고 성묘를 가고 하는 민족 최대명절을 맞았습니다. 고향을 지키셨거나 찾으신분,그리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신 여러분 께 감사와 축하 인사 드립니다.

뜻하지 않았던 태풍 피해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어 명절이란말 조차 민망스럽기도 합니다.서로 돕고 힘을 모아 빠른 시일안에 그 상처를 아물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아픔에서도 수 천년 이어 온 민족명절의 맥은 끊어질 수 없었습니다. 두엄 더미에 묻어 익히던 집장 내음은 없어도,아직도 질박한 시골인심이 묻어 있는 그 풀밭길이 그리워 지게 되었지요. 하기야 60대가 그리는 고향과 2~30대가 느끼는 고향맛은 조금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도시의 메마른 정서를 삭히는데는 어머니 가슴처럼 포근한, 가족들과 함께 어린시절을 보낸 고향 땅이 아니겠는가 생각 되었습니다.

60대가 고향을 찾았습니다.

추석전날 아침일찍 행여나 하고 서울역으로 갔습니다. 물론 좌석표 따위는 기대조차 않은채 입석표라도구할 수 있을까 해서 였지요. "좌석-입석 전노선 매진" 팻말이 있었지만 늦은1시 40분 입석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40분발 개찰대열 맨 뒤에 서 있다가 이번차에 태워 주길 바랬습니다. 개찰직원은 뜻 밖애도 차표 한쪽을 잘라 내면서 열차가 곧 떠나니빨리 플랫-포움으로 나가라고 말 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 장항행 무궁화열차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 래서 2시간20분 동안 꼬박 서서 가야 하는 고향길이었지만 결코 멀지 않았습니다.

모처럼 추석 전날 (나는 추석 때도 설 때도 수 십년 동안을 거의 그날 아침 입석표로 고향을 찾았 답니다.)에, 10시도 채 안 되어 이르고 보니 마음 한 구 석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장마당을 가 보고 싶었습니 다. 40년 만에 찾은 옛 5일장 장터는 크고 작은 건물이 들어서고 있어 옛날 노전 형태와는 조금은 달라 보였 습니다. 추석과 차례상을 준비하려 나온 대목장날 답 게 붐볐습니다. 때깔 좋은 생선들이 즐비한 어물전,벌 정게 달구어진 무쇠를 패대어 호미와 낫을 만들고 있 는 대장간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옛날 영단방앗간은 없어지고 그 자리엔 싸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텃 밭 에서 갓 뽑아 온 싱싱한 채소들,물동이에 집에서 길러 온 콩나물, 침샘을 자극하는 광천 어리굴젖 등 사지도 않으면서 이것 저것 둘러보고 있는데 웬 젊은이들이 인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전대협 간부였던 남편과 지금도 반미여성회에서 열심히 일하 고 있는 부인이었습니다. 그들도 추석에 부모님을 찾 아 내려 왔다가 대목장을 보고 있었습니다.고향사람 으로 남 다른일에 헌신하고 있는 두 사람이 자랑스럽 게 보였습니다.

요즘 몇해 동안 고향을 찾을 때 마다 느끼는 안 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마을 앞을 지나는 도로를 새로 내고 넓히면서 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동산의 왼쪽 머 리부분을 깎아 낸 바보짓 때문이고 마을의 상징이었 던 정자나무가 죽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우 리동네 이름이 용머리(이 우리말을 왜놈들이 용두(龍 頭)라고 고쳤는데 지금도 용두부락이라고 부르고 있 으니 개탄할 일입니다.)이듯이 바로 용의 머리를 크게 상처낸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자나무는 버드나무과 이지만 능수버들이 아닌 물 가에서 많이 자라는 흔히 냇버들,물버들 이라고 하는 마을의 수호신 처럼 섬기 던 고목이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늘 저만 했었다고 했다니 수 백년은 넉히 될정싶은 늙은 버드나무였습니다. 어른 세사람이 두 팔을 벌려야할 정도로 나무둘레가 굵었고 들 가운데 있어서 모내기,김매기,벼베기할 때마다 수 십명 일 꾼들이 쉴 수 있는 넓은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했었지요. 이 정자나무가 죽어 가고 있는 원인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나무 가까이 까지 일구어 내고 비료와 농약을 퍼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천정리를 하고 경지정리를 하여 수확이 늘어 난 것만은 사실이겠지만 나무가 죽는다는 것은 바로 사람들도 죽어갈 수 있다는 경고일 것이었습니다. 또한 냇물을 바로 잡고 폭을 넓혀 큰 물피해를 줄인것은 백번 잘 했지만 옛날 큰 내(이곳에 선 금마천으로 불리는 유명한 삽교천이기도 합니다.

오서산(790m),봉수산(484),초롱산(340)등 차령 이북의 물길이 모이고 용봉산(390m),일월산(394)등 가야지맥 동쪽 물길이 합쳐져 넓은 들판을 흐르는 냇물)의 보막이와,어렸을 때 보기에 바다처럼 넓고 깊었던, 그래서 잉어, 붕어, 가물치, 메기, 장어, 모래무지, 피라미등 물고기도 살 곳을 잃게되었으며, 앞 내도 경지정리로 모두 메꿔져 그 냇뚝에 우람하게 자라던 늙은 버드나무와 마을을 감싸 주었던 아름다운 정취도 사라진 삭막한 모습이었습니다.이제 아직까지는 사람들머리 속에 남아 있는 용머리, 용갈미, 돌다리, 벌 터, 쇠마답, 고라실, 여수애, 미력세기, 대추쟁이하는 땅이름이라도 묻히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찾은 즐거움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들과 함께 송편을 빚고 객지에 나가 있는 조카들 모두 모여 함께 차례를 지냈고 조상 성묘 를 하고 종중일을 상의하고 무엇보다 들는,고라실논 을 둘러 보며 애써 가꾼 알곡들이 알차게 영글어 가는 풍요로움을 보았습니다. 이웃 마을에 살고 계신 초등 학교때 1학년,5학년을 맡아 주셨던 옛 스승님을 찾아 뵙고, 이곳에서 농촌사회운동을 할 때 끔찍히도 귀여 워 했던 이젠 50대가 된 조카벌 되는 사람들과 고기죽 을 쑤어 먹으면서 옛날 천렵기분을 내기도 했습니다. 추석 하루전날 고향 간 넉넉한 시간이 이렇게 소중 하 다는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댁이 마련한 차표로 편안하게 서울행 밤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원래 위 이야기와 비슷한 글은 추석날 밤과이튿날 새벽4시까지 서툰 솜씨로 타자 했었으나 다 쳐놓고 '보내기'가 아니라 '목록'을 눌러 모두 날려 버리게 되었었습니다. 어떻게 복원시킬 수없나 해서 염치 불구하고 득형님께 새벽 5시 전화를 걸어 알아 보았지만 불가능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때의 낭패감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밤샘한 채 22일엔 정현찬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 모친상을 당하여 진주를 다녀와야 했습니다. 지금 이시간 까지 사흘째 밤 잠을 놓치고 있는 것은 몇 달만에 긴 시간 동안 타자한 것을 한 번 잘못 눌러 허무하게 날려 버린것이 너무 억울해서랍니다.

연휴에도 선생님들 찾아뵌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연휴동안 전화와 격려를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멀리 해외에서 전화 주신 정창영님과 오랫동안 인사 보내지 못한 임은영 신유호님 언제나 건강 하시고 뜻한 일들이 잘 이루어지기 바라겠습니다.













● 이 달 만평란은 인터넷 방송국 민중의 소리'기자로 알하는 김도균 회원님께서 추천해주셨습니다.

이런일이있었어요

- 01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시사모임이 주관 하는 역사강좌 한상권교수의 한국현대사 제8강 '미군정 과 단독정부 수립' 강의가 있었음. '미국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비디오 상영에 이어 30여명이 함 께한 가운데 제8강 강의는 분단 책임을 비롯한 일그러진 고 있었음
- ▲ 제15호 태풍 '루사'가 남해안에 상륙, 내륙을 통과하는 오늘 아침까지 확인 130여명의 사망·실종등 인명피해 를 냈음
- 02 향린교회에서 비전향장기수송환추진위원회 주최로 비전 향장기수 2차송환촉구기자회견과 9.2비전향장기수송환 2돌기념 및 2차송환촉구대회가 열렸음. 기자회견은 고난 과 및 취지(노진민), 기자회견문 낭독(권오헌)등 순서로 이어졌고 2돌기념 및 촉구대회는 노진민 집행위원장 사 회로 인사말(홍근수), 촉구발언(오종렬, 임기란, 이종린, 혜조스님), 사례발표(박종린), 촉구시낭송(이기형)등으 로 이어졌음. 행사를 마치고 '한·하늘·땅' 에서 비전향 장기수송환 2돌기념과 2차송환을 촉구하는 대표들과 비 전향장기수의 떡잘음이 있은 다음 함께 식사시간 가짐.
- ☎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권오헌 상임공동대표와 노진민 집행위원장은 적십자사, 남북교류국과 통일부 인 도지원국을 방문 2차송환촉구기자회견문과 송환희망자 명단을 전하고 빠른 시일안 송환을 촉구함
- ▲ 서울 검찰청 보안수사대는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과 이승호 조통위원장을 시내에서 불법, 강제연행. 옥인동 분실에서 한청건설과정등 조사하는 것으로 밝혀 짐 - 한청회원 150여명은 이날 밤 8시 옥인동 분실앞에서 강제연행 규탄집회를 열고 즉각 석방을 요구 - 이날 전상 봉의장 부인 강병식씨와 장경욱변호사, 권오헌등 전상봉 의장 면회하고 이어 종로경찰서로 옮겨 규탄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승호씨 가족들과 권오헌, 장경욱변호사가 면회 했음 - 면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서울청 보안수 사대는 한청 사무처장 정대일씨를 또 다시 연행했음
- 03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일연대 원로간담회가 열

- 렀음. 8.15 민족통일대회에 대한 집행부의 간략한 보고가 있었고 참석자들의 민족통일대회 과정에서 당국의 간섭 과 통제에 대한 규탄과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통일연대 의 자주성에 상처를 입은 일에 반성과 대다짐, 그리고 조 직강화문제 등 의견진술
- 우리 현대사의 배경에 미국이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밝히 🦾 국가인권위에서 23일째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장애인이 동권연대 농성장 격려방문
- 과정에서 어제 하루 강릉지방에 870.5mm의 비를 내려 04 서울경찰청 앞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주최로 '한청에 대한 공안탄압규탄과 연행자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기자 회견'을 열다. 한청회원들과 전국연합, 범민련, 통일연 대, 통일광장, 민가협등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하여 기 자회견문 낭독(권오헌)과 규탄발언(임기란외)등이 있었 고 서울경찰청에 항의서한 접수시킴(이천재, 노수희, 권 오헌외)
- 모임의 진광수목사님 사회로 민중의례, 오신분 소개, 경 \Rightarrow 사단법인 한국청소년사랑회, MBC주최, 서울국악예술고 등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 주관으로 재일조선학생소년 예술단 초청공연이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음. 공 연에는 민가협과 양심수후원회와 통일광장 선생님들과 통일연대, 민화협, 종단 등 통일운동 단체들이 함께 관람 했음. 이 공연기간 9.2~9일까지 양심수후원회 이정태운 영위원과 고광희간사, 박지윤회원이 자봉단으로 일하게 되었음. 모지희, 신다인, 신준철, 모성룡, 나정옥, 모아라, 모두리, 김영옥, 김혜순, 노혁, 이창희, 이일규, 김숙희, 이승미, 변의숙, 이정규, 이기욱, 조명희, 여혜정, 주경임, 이득형, 양계숙, 양인철, 한재경, 이용준, 권오헌.
 -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들은 1980년대 초 '녹화사 업'과 관련해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에 동행명령장을 전달했으나 집을 비우고 있어 집행하지 못함 - 진상규명위원회는 동행명령에 불응한 두 사람에 게 특별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방안 을 검토중이라고 함.
 -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공대위등 노 동사회단체 대표들이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 05 민가협 440회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 ☎ 민가협 회원들 목요집회를 마치고 옥인동 대공분실에 가 서 전상봉 한청의장등 강제연행 이적단체 사건조작에 강

이런일이있었어요

력 항의함 - 항의를 마치고 임기란 전 회장을 비롯한 회원 들과 이창희간사, 남대문서로 전상봉씨면회. 조순덕 상임 의장을 비롯한 회원들 종로서로 이승호씨 면회, 서경순 전 상임의장과 권오헌 등 중부서로 정대일씨 면회함

- ▲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인권사회단체 대표들 '공소시효 배 제 입법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 출함
-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범대위 주최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 주관으로 '여 중생사건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불평등한 SOFA개정촉 구 기자회견'을 열다
- ▲ 7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릴 2002 남북통일축구경 기에 참가할 북측 선수단등 49명이 인천공항에 도착 단 일기를 들고 입국장을 나서 남측 관계자들의 환영을 받 다
- 06 미 대사관 앞에서 자통협과 실천연대등 사회단체 공동으 로 '남북화해 방해하는 대북정책조정 감독그룹(TOCG) 🐞 6일부터 금강산여관에서 열리고 있던 4차 남북적십자회 회의 규타 기자회견'을 열고 한 · 미 · 일 대북적대 공조를 규탄
- 07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석방, 정치수배해제등을 위한 토 요캠페인이 양심수후원회와 국보철국민연대, 구속양심 수대책위등 공동으로 탑골공원에서 열림. 국가보안법폐 지등 서명받기와 유인물 나누어주기, 선전전등이 있었 음. 이창희, 이승미, 이일규, 정형근, 송창학, 김호현, 권 오헌등 함께 함
- ▲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단일기를 들고 환호하는 수만 명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통일축구경기가 1990년 이래 3번째 열림. 경기는 전·후반 90분에서 무승부로 끝 남. 경기가 끝나고 남북 선수들은 대형 단일기를 들고 운 09 한청 사무실에서 한청탄압에 대한 중요사회단체 집행책 동장을 돌며 관중들 환호에 답하였음. 통일연대는 경기 장 밖 평화의 공원에 대형 영사막을 설치하고 통일축구 를 응원하며 민족의 화해와 단합, 민족대단결의 열기를 펼쳤음. 양심수후원회는 이정규, 김호현, 한상권, 송창 창희, 김창희님 부부와 아이들, 권오헌이 경기장 안팎에 함께 했으며 박용길 장로님(지도위원)을 모시고 기념촬 영도 했음. 한편 재일조선학생소년예술단에 자원봉사하

고 있는 이정태, 고광희, 박지윤회원도 예술단과 함께 경 기를 관람했음

- 08 옥인동 서울경찰청 대공분실 앞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 회 주최로 '한청 이적규정음모 분쇄와 지도부 구출을 위 한 청년결의대회'를 전국에서 모인 300여명 회원과 사회 단체 대표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열림. 이혁희 경기민족민 주청년단체협의회 부회장 사회로 비상대책위원회 이상 규 위원장의 결의발언, 임방규 통일광장 대표의 격려말, 김용진 광주전남청년단체협의회 의장들 정치연설이 있 었음, 마지막으로 항의서한을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이 읽고 함께 한 사회단체 대표들과 함께 보안수사대에 전달 하려 했으나 받아주지 않아 집회참석회원들과 1시간이상 몸싸움 끝에 종로서 정보과직원을 통해 전달하다. 집회참 석 한청회원들은 전상봉, 이승호, 정대일씨를 각 유치경 찰서별로 나누어 면회를 했음.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송창 학, 이창희, 이일규, 정형근, 이승미회원 함께 했음
- 담에서는 이산가족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운영, 이산가 족들의 생사확인, 서신교환사업, 6.25전쟁시기 행방불명 된 사람의 생사 · 주소확인등 6개항을 합의했다고 발표. 이와 관련 북의 '중앙방송' 은 면회소설 치문제, 생사 · 주 소확인 및 서신교환 정례화, 비전향장기수 송환문제, 조 국해방전쟁시기 행불자 생사확인문제, 5차 흩어진 가 족·친척 상봉과 관련한 입장을 담은 합의서 초안을 내 놨다고 보도된 것으로 알려졌음
- ▲ 민주노동당은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대 선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권영길 대표를 찬성 90.8% 지지 로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 임자 대응간담회의
- ☀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심리로 이른바 민혁당사건에 연루되어 구속기소된 이석기씨 1 심재판이 열렸음.
- 학, 이승미, 유선화, 한재경, 김민정, 김숙희, 이일규, 이 🛛 🙀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전국노점상연합 등 사회단체 대표 들이 지난 8일 중구청에서 분신, 사망한 고 박봉규씨 사 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면 담을 요구하다 경찰과 몸싸움을 하다

-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는 1970년 제8대 국회의원 선거개표과정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의문사한 김창수(당시 53살)씨가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위법한 공 🛭 🚔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회 권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
- 🚔 이승미, 송창학, 노혁, 이정태, 이창희, 이득행, 변의숙 회 원 등이 기획모임을 인사동에서 갖고 회원사업 비상근간 사로 송창학님을 추천하기로 함.
- 10 광화문 열린시민 공원에서 SOFA개정 국민행동, 용산운동 본부 미군기지반환연대, 매향리 범대위, 민중연대(준) 공 동으로 '미군장갑차 여중생사건 형사재판권이양 및 SOFA개정을 위한 제36차 미대사관앞 반미연합 집회'열 리다. 매달 둘째 화요일에 열리고 있는 이 집회에서는 재 미대사관에 전달했음
- ☞ 종묘공원에서 전국노점상연합 박봉규비대위 주최로 2차 투쟁대회를 열고 박봉규씨 분신진상규명과 생존권보장 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다
- ☎ 김원웅(한나라당), 김희선(민주당), 송광호(자민련)등 국 회의원 25명은 의문사진상규명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 고 그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 11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추모연대, 한총련범사회인 대책 위, 한총련 공동으로 '한총련 열사 명예회복, 합법적 활 동보장과 대의원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 견'을 열다. 정진우 범사위 집행위원장 사회로 참가대표 소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취지말(권오헌), 국가위 권위 진정취지(김승교), 한총련 하반기 대의원대회 개최 취지 및 검·경에 대한 공개제안(한총련), 기자회견문 낭 독(천영세)등으로 진행.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표들 국가 인권위에 한총련대의원가족에 가해진 인권침해 사례 33 건 진정 등 접수시킴
- ▲ 경찰은 112일째 직권중재제도 반대등 장기 농성파업을 하던 강남성모병원, 경희의료원에 6시 경찰 28개중대 3000여명을 투입시켜 농성조합원과 학생등 490여명을 강제연행하며 폭력으로 해산하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고 민주노총 유덕상 직무대행등 민주노총 간부 5명을 연

- 행하다. 이 과정에서 경희대생 임영준씨는 코뼈가 부러 지는 중상을 입었다.
- 장 김희선의원) 주최로 '일제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 명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다. 특별법은 일제강 점기를 전후한 시기에 일제에 반민족행위를 한 자들의 행적과 죄상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 장애인 이동권연대회원 70여명이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 역 선로를 점거하고 지난 5월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장애 인 추락사망에 대한 서울시의 사과와 대책마련을 요구 -경찰은 절단기로 쇠사슬등을 끊은 뒤 시위를 벌인 장애 인 70명을 경찰서로 강제연행 조사중임
- 판관할권 이양, SOFA개정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채택, 12 민가협 441회 목요집회는 '노점상 단속'의 부당함등에 대한 글(유서)을 서울시장앞으로 남기고 분신자살한 고 박동규님을 위해 묵념을 갖은 후 시작하였습니다. 여는 말 : 조순덕 상임의장, 114일째 파업중인 경희의료원 김 효숙 간호사의 남편 고영대씨가 나와 9.11공권력투입당 시 상황설명과 문제해결이 더딘 이유등에 대한 발언. 한 양대 소병선씨-9/4 연행되어 남영동경찰서에 있는 민주 노동당 고승우, 홍인분씨(3,4년전 집회장에서 선전물 돌 리던 모습을 증거사진으로 들이대며 국가보안법위반이 라 함) 사례발표. 한총련 합법화대책위 조응주씨-8/23일 에 있었던 한총련 이적규정의 부당함을 유엔인권위에 제 소하기 위해 가졌던 기자회견내용 발표.
 - ☞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건강권회복을 위한 보건·의료단 체연합, 민주노동당,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81개 단체가 함께 하는 '병원파업 공권력투입을 규탄하는 민주시민간 체 기자회견이 열림. 기자회견에서는 연행자 즉각석방, 경찰병력철수, 성추행사건 진상조사 및 경찰청장 공개사 과, 노·사대화 즉각재개, 구사대 폭력사주등 구속·부 당노동행위 처벌등을 촉구
 - ▲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4년 유신체제에 반대하던 '민청학련'을 배후조종 국가를 전복하고 공산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는 혐의로 23명이 구속되고 8명이 사형집행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사건이 당시 중앙정보부 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발표
- 19명중 김영숙, 박기우, 성모병원 지부장등 5명이 체포되 🐞 세계평화의 적, 인류 행복을 저해하는 악의 축 미국과 그 두목 부시가 이라크 침공을 예고하는 공갈협박을 하다.

이런일이있었어요 2002년 9월

부시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라크에게 대량살상무기의 공개와 해체, 테러지원중단, 소수민족단압중지, 걸프전 포로·실종자 공개, 구호물자 투명한 처리등 늘어놓으며 테러리스트나 폭군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문명을 위협 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지껄임

- 13 명동향린교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표자회의 열림. 회의에서는 자주여성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일맞이 한신대 연대등 세 단체의통일연대 가입신청 심의와 8.15민족통일대회등 재무보고와 분담금미납문제 등논의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회의실에서 계승연대 등 사회단체 대표들과 진상규명위 사무국장외 조사과 간부들사이에 9.16일로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사현황 설명 및대책논의. 오늘 현재 83건 진정가운데 44건이 종료(인용11, 기각21, 불능11, 취하1) 심의중인 사건39(31건 조사보고, 1건 보강, 7건 미보고)라고 설명. 무엇보다 피조사기관이나 관계자의 협조거부로 늦어지고 조사에 한계를느낀다고 진상규명위는 설명. 진상규명위와 함께 사회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개정에 총력을 다하기로 의견모음. 한편 국회는 의문사진상개정안심의를 외면하다
- ⇒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제14차년도제5차 운영위원회열림.활동보고,회계보고에이어 2002년회 원역사기행(10,26~27일로 잠정결정),사무국체계문제 (현재 사무국간사 2명외 회원사업등비상근간사체제로 업무활성화에 힘쓰기로). 송창학기획위원을 비상근가사로인준함
- ♠ 후원회소식 131호 발송작업 만남의 집에서 회원들 애씀.
 이일규, 이창희, 박지윤, 고광희, 한수정, 송창학, 김숙희 회원과 특히 문상봉선생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1200여 통 발송작업을 함께 하심
- ☎ 10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가 13일부터 자정을 넘어서까지 한총련 대의원과 각계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가운 데 광운대에서 한총련의장 권한대행 윤경회대변인 사회로 열림. 779명 대의원가운데 424명이 참석하여 한총련 강령·규약개정, 2002년 하반기 한총련사업계획 토론 채택, 특별결의문 채택등으로 이어집. 강령개정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밝힌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원

- 적아래 6 · 15공동선언 이행으로 범민족 통일국가를 수립하는 등으로 했고 이밖에 · 장애인등 인권보장, 환경보호등을 강령에 신설하다. 특별결의문은 여중생 살인미군처벌, 부시사과와 미군철수, 미국의 전쟁반대 전국대학생총궐기, 남 · 북 · 해외청년학생통일대회성사, 10기 한총련 김형주의장 무죄석방과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촉구, 교육시장화정책 국회입안반대, 교육부의 교육개방정책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노농학 연대투쟁등을 채택함
- ☞ 경찰은 10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에 참석하려던 상명 대 총학생회장을 월곡역 부근에서 불법장제연행, 서대문 경찰서에 유치하는 만행을 저지르다. 학생들과 노수희, 권낙기씨등사회단체 대표들이 항의하고 면회를 함
- * 광운대에서 10기 한총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리기 전 '한총련 열사 추모문화제' 열림. '한총련 열사추모와 한 총련 합법화를 위한 길굿'을 시작으로 이정열, 조국과 청춘, 천리마, 우리나라, 한반도등 노래패가 출연하고 한총 련 중앙문예단의 집체극등이 있었음
- 滿 제5차 남북이산가족상봉이 금강산 온정각 휴게소에서 북 측가족 100명과 남측가족 · 친척 455명이 분단 50여년만 에 이루어져 재회의 기쁨을 나눔
- 14 미군장갑차에 무참하게 희생된 심미선, 신효순 두 여중생의 넋을 기리는 추모문화제 '미선이와 효순이의 아리랑'이 범국민추모문화제준비 위원회 주최 한겨레신문, 민중의소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다음커뮤니케이션 후원으로 경희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렸음. 1만 여 관중이 함께 한 이 공연에는 청소년단체 '희망, 우리나라, 푸른학교 어린이, 통일연대 문예위원회외 여러 가수들이 출연하고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통일뉴스, 참세상방송국, 천명, 시민의 방송등이 공동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였음
- ➡ 미군장갑차 여중생 희생 추모문화제에 가던 서경원 전의원이 회기역 부근 전철안에서 미군병사에게 폭행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짐. 전철안에서 두 여중생 유인물을 대학생들이 나누어주고 있는데 미군병사들이 받지 않겠다고 욕설을 해대고 있어 서의원이 욕하지 말라고 외치자 여중생 살인사건을 일으킨 바로 미2사단 소속(캠프 레드클라우드) 병사 머피(Murphy John. D 22세)가 서의원을 주먹으로 폭행, 오른쪽 두 눈덩이뼈가 금가

- 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폭행미군은 대학생이 경희대로 잡 아와 경찰에 넘겼으나 새벽 미군부대 부헌병사령관 제럴 드 디 커리(대령)가 와서 사과하고 자술서를 받은 다음 인계했음
- ▲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병원파업 강제진압 노동 운동 탄압 김대중정권 규탄대회'가 보건의료노조원등 민 주노총조합원, 청년학생등 5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 림. 집회에서는 경찰병력 즉각철수, 강남성모병원, 경희 의료원 노사대화 즉각재개, 경찰투입 책임자처벌, 두 병 원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주장했고 집회를 마친 다음 명동까지 거리행진 했음
- ☎ 매오로시에서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 생님께 문병을 다녀옴.
- 15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비상대책위 주최 로 범민련, 전국연합, 민가협등 사회단체 대표등 300여명 이 모여 '한청이적규정 저지와 구속자석방을 위한 제1차 범국민대회'를 열다. 이혁희씨 사회와 이종린, 김홍현, 김이경씨등 석방촉구발언
- ▲ 청량리 경찰서 앞에서 자통협 주관으로 서경원 전 의원 폭행규탄과 미군범죄자 신병인도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편 서경원 전 의원 폭행미군 '머피'와 참고인 2명, 젬 크스 멜룸(Jemks Melum) 법무관, 미8군부헌병사령관 '커리' 중령등 20여명이 뒤늦게 청량리 경찰서에 와서 자 신들에 유리한 일방적 증언을 하고 조사를 받았음
- ▲ 남과 북은 판문점에서 제6차 남북(북남)군사실무회담을 열고 ①남북비무장지대 통문 동시개방 ②비무장지대 지 뢰제거 ③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개설 등을 합의. 경의 선, 동해선 연결공사와 관련된 군사보장합의
- 16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주최로 '의문사조사중단 항의 및 진상규명특별법개정촉 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상임공동대표)인사말, 권오헌(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 견 취지말, 김학철(추모연대)의 경과·계획발표, 남상헌 (상임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이어졌음. 이 이회창후보 면담요청과 규탄시위를 벌임

- 고 코뼈가 부러지는 큰 상처를 입고 경희의료원 응급실 🐞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경찰폭력 투입·진압 김 대중정권 규타, 노동운동타압분쇄 민주노조사수 민주노 총 결의대회'를 열다
 - ☞ 경희의료원 1017호실에 입원치료중인 서경원 전 의원 문 병다녀 왔음. 서 전의원은 양쪽 눈두덩에 멍이 심하고 금 이 갔으며 코뼈가 부러지는 미군병사로부터 폭행을 당하 고 입원중이었음. 마침 청량리경찰서 조사계 형사로부터 사건조사를 받고 있었음
 - ☎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명예회복과 자유왕래를 촉구하 는 한일공동성명서를 일본에서 34개 단체 264명 각계 인 사와 국내에서 민족민주운동단체와 시민·사회·종교단 체와 대표들이 함께하며 발표하다. 공동성명서는 한통련 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취소하고 명예회복, 자유로 운 고국왕래, 국가보안볍폐지, 양심수석방을 촉구했음
 -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81년 육군5사단 삼청교육감 호대대에서 숨진 전정배(당시 30살)씨가 삼청교육대의 불법성에 대해 집단저항을 하는 과정에서 숨졌다며 민주 화운동과 관련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으로 인정
 - 17 서초동 검찰청 법원 앞에서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이적 규정저지와 구속자석 방을 위한 범국민대 책위원회(준) 발 족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사회, 이종린 범남본의장 인 사말, 이상규 비상대책위 대표의 경과 및 투쟁계획 발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으로 이어 졌음. 회견장에는 한청소속단체 성원들과 범민련, 전국 연합, 통일연대, 민가협, 유가협, 전농, 통일광장등 사회 단체 대표들이 함께 했음. 기자회견을 마치고 항의서한 을 서울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키고(임방규, 이상규, 권오 헌외) 오후에는 권오헌, 이상규씨가 서울지검 공안2부 박준효 부부장검사를 면담,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고 즉각석방을 촉구함
 - 대표자회 의를 열다
 - ▲ 지난 3일 강북구 우이1동 우이빌라 101호 주소지로 이사 하신 박선애·박순애선생님(2002.9.2일 북송되신 윤희보 선생님댁)을 찾아 뵈었습니다. 우이동의 매우 경관 좋은 곳에 집을 얻어 공기도 좋고 넓고 시원해서 좋았습니다
- 어 2시부터 한나라당사 앞에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평양 을 방문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역사적인

이런일이있었어요

- 조 · 일정상회담을 열고 일본 총리가 '조선인민에 대한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 아들여 통절한 반성과 함께 식민지지배에 대한 마음으로 🐞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중국과의 국경도시인 부터의 사죄'를 하고 김국방위원장도 일본인 납치문제에 사과하면서 다음달에 조 · 일수교교섭을 하기로 합의
-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975년 비전향 좌익사업 관리 를 위해 제정된 '사회안전법' 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 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결정하고 감호소에서 이 법의 철 폐를 요구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다 강제급식과정에서 숨 진 비전향장기수 변형만(당시 46세), 김용성(당시 63세) 씨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성을 인정
- 를 위한 통일연대 주최로 '미국의 이라크 공격 지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다
- 대책위원회 주최로 '서경원 전 의원 폭행사건 진상발표 및 왜곡날조 미국규탄 기자회견 열다. 이창희, 권오헌 함께 함
- ▲ 서초동 검찰-법원 앞에서 '한청이적단체규정 음모저지와 민주노동당 대의원 홍인분, 고승우 석방 결의대회'에 참 석. 홍근수, 권오헌 연대사하다. 한청회원과 민주노동당 원, 청년학생들 함께 함
- ☀ 파주시 월농리 미2사단소속 캠프 에드워즈 정문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군트 의 살인만행에 대한 규타 기자회견'을 열다. 홍근수목사 님의 여는말, 김판태씨의 경과보고, 권오헌의 기자회견 문 낭독, 유족들 인사말이 있었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금 촌의료원에 안치된 빈소를 찾아 문상 - 이창희, 권오헌 함께 함
- ▲ 남과 북에서 끊어졌던 남북사이 철길과 도로를 잇는 역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북측은 개성역과 고성군 청년역 에서 철조망을 거둬내고 통일의 문을 여는 작업에 들어 가다.
- 19 4 · 19혁명 뒤 중앙사회당 조직위원장 등을 맡아 민족통 일운동을 하다가 5.16군사쿠데타 세력에 붙잡혀 군사재

- 판에서 사법살인당한 최백근선생 묘소를 당시 동료들과 함께 참배
- 신의주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했다고 19일 관영 중앙통신 이 보도한 것으로 언론들이 밝힘. 중앙통신에 따르면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위원 장 김영남)가 지난 12일 6장 101조로 구성된 특구기본법 정령을 통해 신의주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 혔다고 함
- 20~22 우리민족 최대명절 한가위 연휴였습니다
- **18** 국방부 앞에서 $6 \cdot 15$ 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 **22** 정현찬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이 모친상(20일)을 당하여 진주시 금산면 가방리로 사회단체 대표들과 문상다녀왔 습니다. 고인의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 휴원회원들 배 5상자를 사가지고 낙성대에 혼자 방을 얻 어 이사오신 박종린 선생님과 몸이 편찮으신 안희숙선생 님, 김해섭선생님, 그리고 권낙기 선생님의 어머님, 고 신인영선생님의 어머님이신 고봉희 할머님 등을 차례로 찾아뵙고 좋은 음식과 덕담을 들었습니다. 이창희, 김호, 고광희, 한수정, 송창학, 이승미 등이 함께 하였습니다.
 - 23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이북선수단 159 명이 오전 10시 고려항공전세기로 김해공항에 도착. 부 산시 부시장과 단일기를 든 응원단의 환영을 받다
 - 레일러에 의한 박승주씨 살인사건과 계속되는 주한미군 🐞 2000년부터 2002년 7월까지 주한미군범죄 1020건 가운 데 62건만 기소돼 6.15%의 기소율을 보인 것으로 서울고 검, 지검의 국회법사위 국정감사자료에서 나타난 것으로 밝혀짐. 같은 기간 국내형사사건 기소율은 50~55%였고 전체 외국인 범죄 1만 6843건 중 6313건(37.5%)에도 크 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남
 - 사적 착공식이 열림. 남측은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역과 24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대표단은 명예회복 보상심 의위원회로 김상근위원장을 면담하고 새로 임명된 심의 위원중 이문재(헌변출신) 변호사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정적 행동과 관련 이변호사의 심의위원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스스로 물러가길 요청한다는 뜻을 전 함, 또한 명예회복 보상법 개정에 보다 힘써줄 것도 요청 함. 오종렬, 조찬배, 권오헌 상임대표와 박석률 국가보안

법관련 위원장,이은경 사무처장 함께 함

- ▲ 이북 관영〈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신의주 특별행정구 초대장관에 양빈 어유야 집단 (유럽-아시아 국제무역회사)회장을 임명하고 대회 경제협력추진위원회(위원장 김용술)가 어유야집단과 신 다고 보도
- ☎ 보건의료노조는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이 계속되고 있는 6개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수 런 위원장등 노조원 50여명이 25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 에 들어간다고 발표
- 📤 연희동 명지대앞에서 이승미, 오수강, 이창희, 김호, 고광 희 등이 편집모임을 갖고 '후원회 소식'평가 및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음.
- 동대책위 주최로 김현희 KAL기사건 전면 재조사를 위한 국회청원 기자회견에 참석, 실종 KAL기사건 유족들과 사 회단체대표들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회에 청원서 제출
- ☞ 태평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 연대회의와 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공동주최로 의문사 진상규명 왜곡보도 조선일보규탄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 다. 허영춘(허원근부친), 김동민(조선일보반대시민연대 대표)교수의 규탄발언과 민언련 시민연합 이유경간사의 왜곡사례보고, 권오헌 계승연대 상임대표의 성명서낭독 🐞 의정부시 주한미2사단에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 7~8 을 마치고 조선일보사로 행진해갔으나 경찰제지로 몸싸 움하다 정리해산함
- ▲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이날 김대중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와 빠른 시일안에 대북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밝힘
- ▲ 낙성대에서 이창희, 송창학, 한수정 시사모임 회원 등이 모여 '인권의 역사'를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10월 역사강좌를 준비함.
- 26 덕수궁 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 대회 전국 단일기응원 기자회견을 열다. 한충목 집행위 원장 사회로 한상렬 공동상임의장의 취지말, 계획발표 날 대형 단일기를 제작, 부산응원단에 보내기로 했음

- ▲ 미 대사관 앞에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사건 대책위원 회주최로 미군의 서경워 전 의워 폭행사건 관련 기자회 견을 열다. 마치고 미대사관에 항의서한 전달. 또한 청량 리 경찰서장을 면담하고 폭행미군 철저수사와 미군측의 사건날조행위 엄정조치 요청하다. (권오헌외 3인)
- 의주 특구개발과 관리운영을 위한 기본합의서를 채택했 👜 민가협 442회 목요집회. 여는 말 : 임기란 전 상임의장. 보건의료노조원들이 당한 인권침해사례발표-여의도성모 병원 이영현노조원, 장애인 이동권연대 엄태근사무국장-장애인리프트가 목숨을 앗아가는 사고가 빈번해지자 서 울시의 공개사과와 근본적인 대책매련을 요구하며 국가 인권위원장실을 점거, 단식농성을 하는 장애인이동권연 대의 사례발표, 김강필대책위 문미정-인터넷에서 주체사 상 실명토론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강필씨 재판(9/25) 결과보고 있었음
- 25 여의도 국회정문앞에서 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공 27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계승연대, 추모 연대, 의문사유가족들의 한나라당사와 국회앞에서의 1 인시위가 16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권오헌 양심수 후원회 대표도 이날 한나라당사앞에서 1인시위에 함께 하고 한나라당 서청원대표에게 의문사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함
 - 🚢 명동성당에서 24일부터 단식농성에 들어가있는 보건의 료노조농성장을 방문, 차수련위원장등과 환담하며 격려. 고광희, 권오헌 함께 함
 - 명이 화염병 12개를 던지고 달아났다고 경찰이 발표. 한 편 서울 미대사관에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미군장갑차 여중생 살인만행을 규탄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던 한 총련소속 대학생들이 경찰에 강제연행당함
 - ▲ 의정부 미2사단 정문앞에서 노동자, 청년, 학생, 시민등 1000여명이 모여 미군장갑차 두 여중생 살인만행규탄 및 미군 살인훈련 중단촉구 제7차 범국민대회 열림. 김홍현 전빈련의장의 여는말과 성남 민족민주청년단체연합 신 건수의장이 읽은 항의서한 등에서 부시사과, 재판관할권 이양, 미2사단폐쇄등을 주장. 대회를 마치고 의정부역 광 장까지 행진을 하고 정리집회를 했음
 - (강진구),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이어짐. 통일연대는 이 28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양심수후원회 주례 집행부모임 (회장, 간사) 갖다. 지난 제5차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된 송

이런일이있었어요

창학 비상근간사의 상견례를 겸한 집행부회의를 열고 지 난 한주사업·활동보고와 앞으로 계획등 토의. 마치고 희, 송창학, 권오헌 함께 함

- ▲ 박정희 유신독재의 사법살인으로 운명하셨던 고 이수병 선생님 막내따님이 양가 부모님과 축하손님들의 축복을 받으며 화촉을 밝혔습니다. 두 분께서 한 가정 이루심을 30 파주 금촌의료원 네거리에서 '미군트레일러 희생자 고 축하드립니다.
- ♠ 음시롱 감시롱 회원 최범림 · 현주회원의 첫 아기 세빈이 의 돌잔치가 공항동 만추웨딩마트에서 있었습니다. 세빈 아기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키워질 것을 기원하고 옴시롱 9월모임도 함께 했습니다. 가을기행은 양심수후원회와 함께하는 역사기행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빈아기의 🛭 🚔 양재동 교육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한국인권위원회가 제 첫 돌을 축하하고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기 빕니다.
- ▲ 인천 나사렛 한방병원에 계시는 정순덕 선생님께 매오로 시에서 문병을 다녀옴.
- 29 양심수후원회 9월 산행이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역에서 만나고 산성입구에서 용인, 이천에서 오고 있는 회원을 기다려 모두 21명이 남한산성답사에 나섰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올라 남문에서 한상권교수의 남한산성에 대한 설 명을 듣고 기념촬영을 했으며 산성을 따라 왼쪽길로 떠 쳤습니다. 가는 곳마다 한교수님의 해설이 있었고 수어 장대가 있는 넓은 공간에서 민가협 어머님들과 김혜순, 송금숙회원이 가져온 맛있는 도시락등으로 주린 위를 채 웠습니다. 서문 가까이에서 소개시간을 갖고 남한산성 입구로 다시 내려와 뒷풀이까지 마쳤습니다. 김교영, 변 숙현, 김장현, 서상호, 정석남, 박경순, 조순덕, 김재선, 한상권, 신현익, 이득형, 양계숙, 송금숙, 김혜순, 모지희, 🐞 '말' 지 4권과 '민족21' 10권을 양심수에게 보냄 김호, 고광희, 이일규, 김미성, 이창희, 권오헌 함께 함
- ▲ 4기 한총련 조통위원장을 맡았었고 때문에 오랜 수배생 활과 감옥을 살고나와 지금은 양심수후원회 편집위원과 🐞 정순덕 선생님에게 간병비를 보냄 민족21 편집부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유병문회원이 오랜 🐞 양심수 94명에게 영치금을 보냄 투쟁동지인 신부 문숙희님을 맞아 동국대 중앙도서관앞 광장에서 두 집안 부모님, 친척분과 각계에서 온 축하손 님의 축복을 받으며 화촉을 밝혔습니다. 두분께서 한 가 정 이루심을 축하드립니다.
- ☎ 서울역 광장에서 '범민련, 한총련, 한청에 대한 이적규정

- 철회 및 저지, 남북청년학생 통일대회 성사를 위한 결의 대회'를 한청타압공대위준비위 주최로 열리다
- 우리탕제원 방문, 선생님들께 인사드렸음. 이창희, 고광 \Rightarrow 🛎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가 남북이 단일기를 들고 함께 입 장하는 가운데 부산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개회식을 하 고 열전에 들어가다
 - 박승주씨 민족자주사회장'이 유족들과 친지, 사회단체 대표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렸음. 장례식장에는 오종렬, 문정현신부님등의 추모사와 사고부대인 '캠프 에드워 즈' 정문에서 노제, 그리고 고인의 생가와 사고현장에서 노제를 지내고 경기도 가평 하색리 선산에 안장했음
 - 정 시행하는 제5회 인권상 시상이 있었음. 이번 인권상 수상자는 미국인 목회자로 이땅에 와서 6~70년대 노동 사목을 하고 특히 인혁당재건위 사건에서 구원활동을 펴 다가 강제추방당한 조지 오글(George E. Ogle)목사와 민 변소속 변호사로 숱한 공안관련 양심수를 변론하고 양심 수후원회 운영위원과 부회장을 맡았던 이덕우 변호사로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수상소감을 밝혔음. 양심수 후원회에서는 김호현, 서미라, 이정태, 이창희, 권오헌 함께 했음
- 나 수어장대-서문-북문을 거쳐 행궁터로 하여 답사를 마 🐞 대검찰청이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 면 지난 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처리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은 29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의 252명에 비해 15.1% 늘어난 것으로 알려짐. 검찰은 이 가운데(290명) 56.9%인 165명을 기소했으면 나머지는 기소유예 103명 (35.5%), 이송 9명(3.1%), 기소중지 11명(3.8%), 무혐의 2 명(0.7%)등으로 처리했다고 밝힘

 - ▲ 출소장기수선생님들과 북녘가신 선생님들 사모님들, 양 심수가족들에게 지원금을 보냄